ARCHITECTS

건축사

September 2015

KOREAN ARCHITECTS

VOL 557

건축사

KOREAN ARCHITECTS JOURNAL

VOL 557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5 09

1966년창간

글. 노은주_ Roh, Eun-joo
본지 편집위원

비오톱 유감

Regret at biotope

고향이라고 딱히 부를 마음은 없지만, 게다가 태어난 곳도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서울에서 서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 그때까지 논이 있고 밭이 있던 한적한 동네 화곡동을 생각할 때는 참 아련하다. 중심가에서 벗어난 서울의 동네가 흔히 그렇듯 밀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지금은 보기 힘든 동네 쌀집, 야채가게, 병원과 약국과 파출소와 사진관과 6~7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양옥 단독주택들 사이로 막 붉은 벽돌로 쌓아올리는 다가구주택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으로 슬슬 차들이 진출해 아이들이 사방치기나 술래잡기, 다방구 같은 길에서의 놀이를 접고 운동장이나 놀이터로 흩어지게 되던 그 무렵, 나는 우장산이라는 이름의 뒷산을 끼고 있는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등교를 하려면 큰길로 쭉 내려가 버스를 타고 우장산을 끼고 서쪽으로 여덟 정거장 정도 돌아야 산 반대편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었다. 동쪽으로 도는 코스는 다섯 정거장이지만 큰길을 건너야 해서 번거로웠다. 그런데 우장산의 등산로를 따라 넘어가면 직선거리는 훨씬 짧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걸리는 시간도 얼추 비슷했다. 물론 저녁때는 늦게 끝나니까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야 했지만, 교통비도 아낄 겸 아주 덥거나 추울 때를 빼고는(다행히 그럴 때는 방학이고) 운동하는 기분으로 아침마다 그 길로 학교를 다녔다.

그 길은 특히 봄이 좋았다. 마치 동화 속 같은 안개가 길을 아스라이 감싸는 가운데, 아침 마실 나온 아주머니들의 두런두런 대화 소리, 운동하는 소리들이 웅성거리며 멀리서 들려오고, 흠뻑 길을 덮은 아카시아의 향기가 황홀할 정도로 강렬했다.

그 동네를 떠나오고 한참 후 다시 가보니 내가 다니던 등산로가 넓어져 축대가 쌓이고 차가 지나가는 넓은 도로가 되고, 주변으로 정식 운동 코스도 생기고 건물도 많이 지어져 그때의 그 산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렇게 서울은, 우리들이 맹신하는 도시는 자연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우고 차를 보내느라 전력을 기울이며 그것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해 왔다. 사람은 너무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하고,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정 부분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올 여름 나는 한 소설가의 집을 설계하고 짓다가 일찍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의 사이트는 골목이 끝나고 등산로가 시작되는 아늑한 언덕 아래 조용한 곳이었다. 집필실을 마련하려던 작가에게는 안성맞춤인 위치였고, 수십 년간 개발의 소용돌이에서 잘 비껴서 있던 은둔자 같은 동네였다.

그런데 우리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우리가 기대려던 언덕이 파헤쳐지고 거기에 24세대 대형 빌라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공사가 시작되었다. 무작스럽게 산을 깎아내리면서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었고 그 허가 과정도 무척 의심스러운데 구청은 아무런 문제없는 공사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알고 보니 그 땅은 1940년 일제 강점기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였고, 심지어 비오톱1등급지였다. 그런데 그 땅을 2003년에 산 한 개발업체가 몇 년 동안 무슨 짓을 어떻게 했

금산주택, 루치아의 뜰, 신진말 빌딩, 존경과 행복의 집, 적십자 시리어스 리쿼스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등을 설계했고, 공간디자인대상, 아천건축상 등을 수상했다.『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사람을 살리는 집』,『나무처럼 자라는집』,『서울풍경화첩』 등 9권의 저서를 냈다.

궁동산 언덕에서 내려다본 사진1

궁동산 언덕에서 내려다본 사진2

는지 비오톱 등급도 낮추고 서울시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21도 경사도 이상의 녹지임에도 이런저런 수작을 부려 결국 허가를 얻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시지가에 산 땅은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시 매물로 나와 있다.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던 우리가 크고 작은 시비를 피하다 결정적으로 그 개발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경찰관 네 명이 보는 앞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대지 사이의 경계에 있던 살구나무 한그루를 무참히 포클레인으로 뽑아버리는 광경을 보면서부터였다. 원칙대로라면 경계에 있던 그 나무는 우리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합의를 거친 후 뽑아야 했고, 나중에 어차피 수림을 회복해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개발행위 허가인만큼 굳이 뽑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세를 과시하느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자연에 대한 파괴이자 상식의 한계선을 넘는 폭력이었다.

비오톱(Biotope)은 생물을 뜻하는 접두사 Bio, 장소를 뜻하는 Topes를 결합한 말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서울시가 2000년부터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 비오톱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해 왔다. 조례에 의하면,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녹지축 설정과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 생태계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가뜩이나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비오톱이 이렇게 쉽사리 해제되고 곧바로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비오톱 지정은 최초 지정된 2010년부터 5년마다 등급이 재조정된다고 하지만, 민원 형식으로 재조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보면 공공연히 비오톱1등급 땅을 매수한다는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싸게 사서 수십 배의 이익을 올릴 방안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개발 불가'인 토지를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비오톱1급지가 자연재해로 손상되었다면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말고 공공이 나서서 녹지를 복원해서 보전해주고, 고의로 훼손했을 시 반드시 처벌하며, 부득이하게 해제하더라도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말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발을 지연시키며 자연스럽게 녹지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나리언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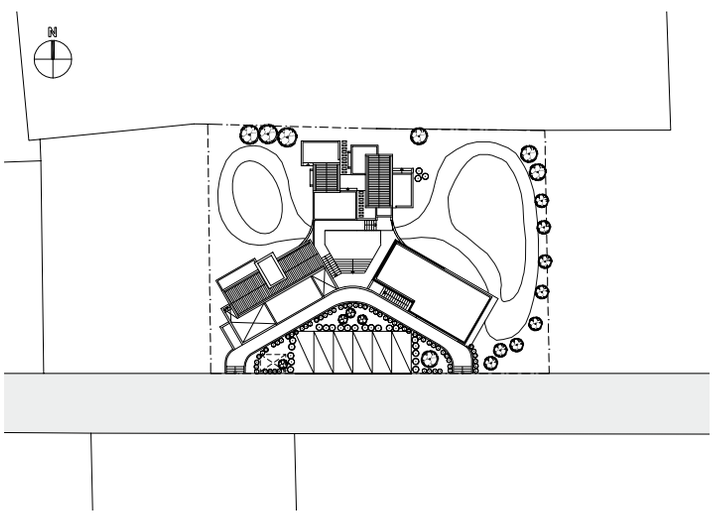
개나리언덕 후

순환 901

Circulation 901

설계자 | **양 건**_KIRA (사진 우측)
가우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아키피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1998년 제주에 가우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제주대학교 겸임교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전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제주아트센터,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명품사옥, ㈜NXC 센터, 탐라문화광장, 제주동물테마파크 등이 있다.

설계자 | **김정일**_KIRA (사진 좌측)
건축사사무소 지에이유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머릿돌에이스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천미, 가우건축사사무소를 거쳐 2014년 지에이유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제주아트센터, 담&루 휴양펜션/가족호텔, (주)NXC제주센터, 비스타리조트 호스텔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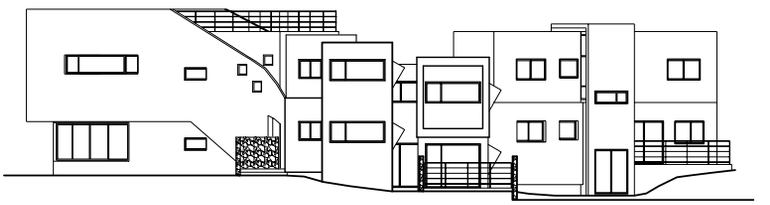
건축주 | 김성하, 최지우
감리자 | 가우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지에이유 에코테리어

대지위치 | 제주시 노형동 288-17,39
주요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15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2.84㎡
연면적(Gross Floor Area) | 413.7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24%
용적률(Floor Area Ratio) | 35.7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드라이비트토탈마감
- 내부 : 강화온돌마루,PVC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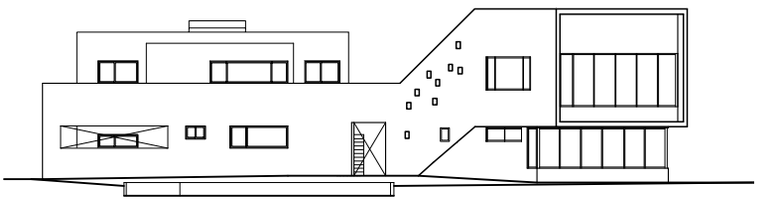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4. 03~2015.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10~2015. 07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문희범, 어융만다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사림구조
  - 기계설비분야 : 명설비
  - 전기분야 : 흥산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명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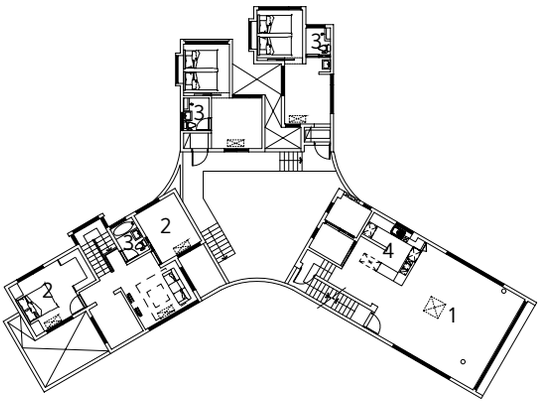
Client : Kim, Seong-ha / Choe, Ji-u
Architect : Yang, Gun / Kim, Jeong-il
Project Team : Moon, Hee-bum / Oyunanhakh.B
Location : 288-17,288-39, Nohyeong-dong,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Salim Structure
HVAC Engineer : Myeong System
Electrical Engineer : Heungsan Engineering
Fire Engineer : Heungsan Engineering
Finishing
Exterier : Dryvit system
Interior : PVC tile, Laminate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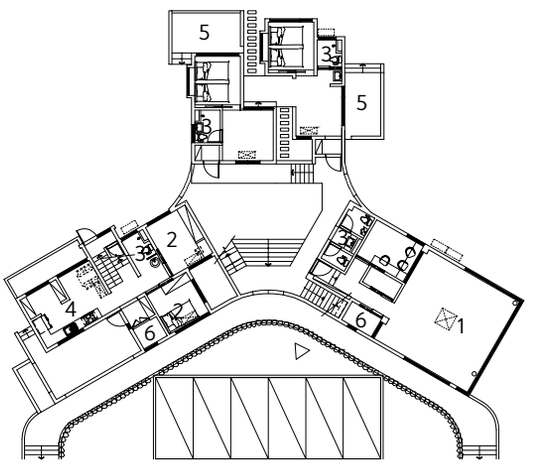
배면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_근린생활시설 2_침실 3_화장실 4_주방 5_테라스 6_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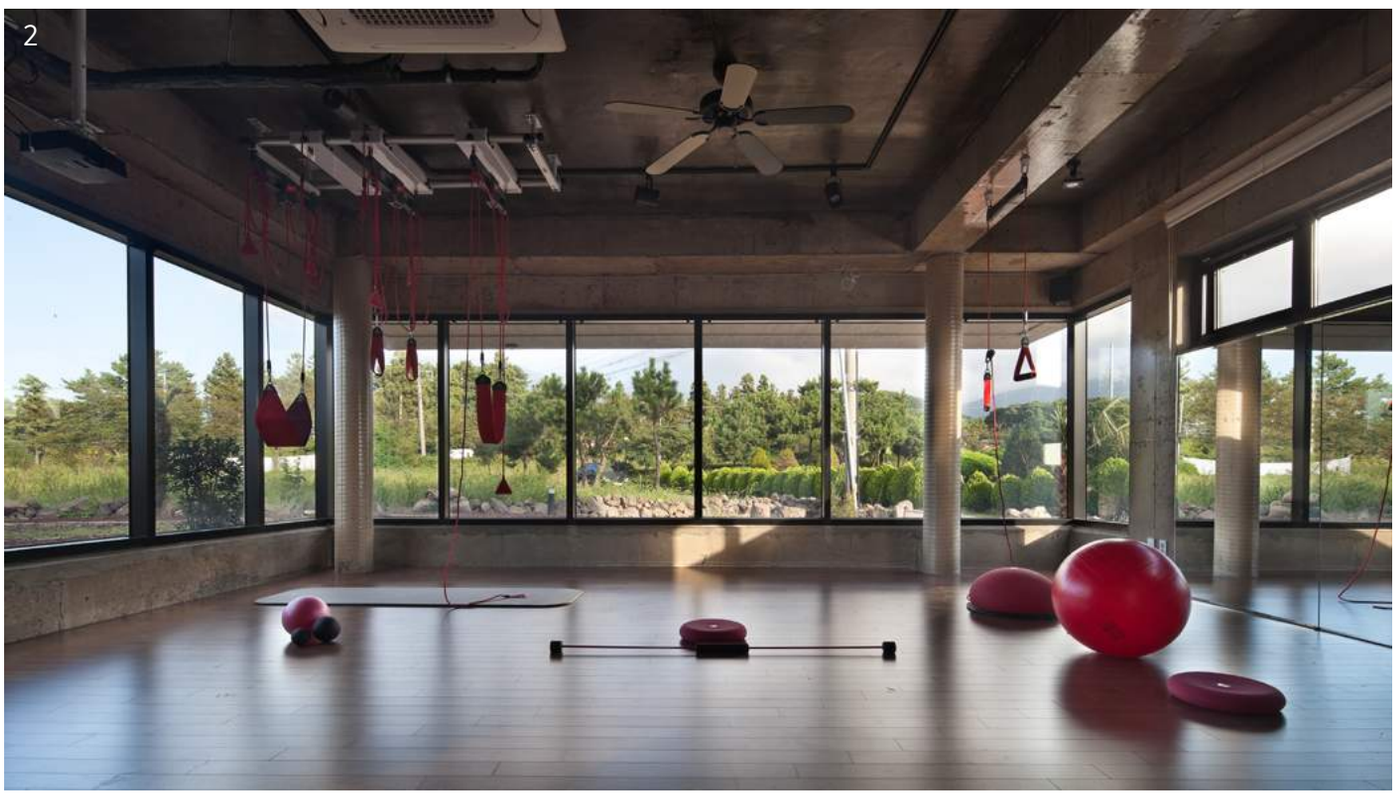
제주의 태고 이래 최근 몇 년처럼 자본이 집중되었던 때가 있었던가! 매달 이주민이 1500명, 년 2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 이제 제주는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이주해 오지만, 막상 제주에서의 생존이란 그리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 있다. 문화이주민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주민들은 기존 제주민에게 생소한 문화적 현상들을 동반한다. 그리고 준비된 프로그램은 게스트하우스와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이력을 담은 카페가 대세이고, 물론 자신들의 삶을 위한 주택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순환901의 건축주 부부 역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힐링한 삶을 동경하여 이주해온 분들이다. 대지는 제주의 허파라 할 수 있는 중산간 지역으로 한라산의 형세가 그대로 드러난 곳으로, 도립미술관과 일명 도깨비 도로라는 관광지가 인접하고 있는 동네에서의 이격도 적절한 편안한 장소이다.

이 대지에서 처음 착안된 이미지는 중세시대의 성(城)이다.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떠나온 노마디언들의 정착지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처로서의 이미지이다. 세상과의 소통은 벽에 뚫린 조그만 입구를 통해서만 연계된다. 그리고 내부의 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계단과 위요된 중정이 구심성을 이룬다. Y형상의 배치의 각단부는 주택, 게스트하우스, 카페가 위치하여 자기 중심성을 지키고 있지만, 중심의 중정과 계단 그리고 가벽에 의해 하나의 전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Y형상에 의해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외부공간이 드러난다. 주차장, 게스트하우스의 공용마당, 주택의 뒷마당으로의 성격이 부여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붉은송이(화산석)의 올레길이 세 개의 마당을 연계하고 건축과 하나 되게 한다. 중정은 거주자들의 교류공간이다. 건축주와 게스트의 인생과 제주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가 별빛이 화려한 밤하늘 아래 펼쳐진다. 게스트하우스간의 틈새에는 중정으로 불어드는 바람길이 있다.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중정에 모여 앉은 게스트들은 제주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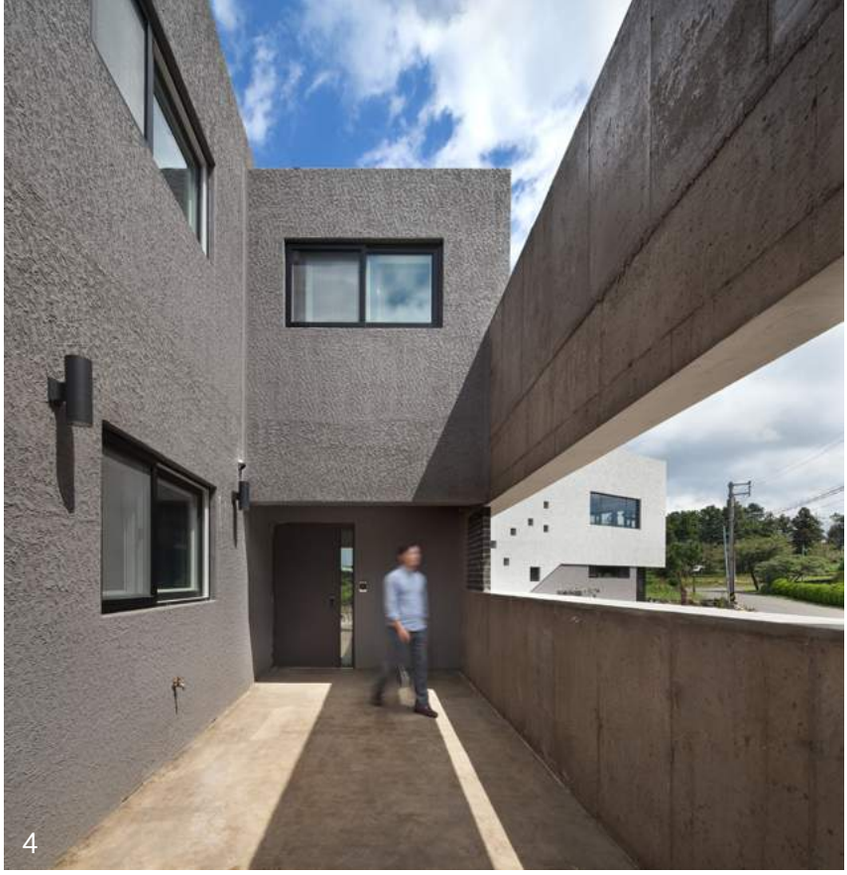
제주의 지역성은 전통적으로 역사성과 장소성에 근거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통합의 산물이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개발의 시대에 놓여있다. 제주의 건축사들은 자본의 욕망과 제주환경에 대한 존중의 태도 사이에서 중도(中道)를 탐색해야 하는 동시대적 지역성에 직면하고 있다. 순환 901은 이러한 제주의 동시대적 지역성에 의한 건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1



2

3



4

1 _ 게스트하우스, 단독주택(배면)
2 _ 운동실 내부
3 _ 게스트하우스 내부
4 _ 복도(내부)
5 _ 메인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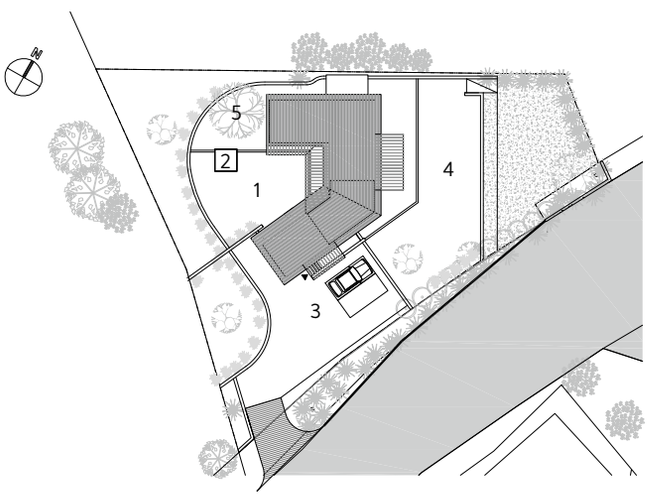
5

둥지

Dung Ji

설계자 | **이홍식**_KIRA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대표.
동의대학교(학사)와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석사)건축학과를 졸업(병원건축에 관한연구)했다. 건축연구소 탑, (주)정림건축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의 대표와 강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생태, 에너지, 디자인을 반영하며 '투자대비 효율성능'을 토대로 보급형 녹색건축을 구현하는 행복집짓기+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2013, 2014년 연속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주거부분 우수상, 경기도건축문화대상 은상, 남양주 친환경최우수건축물 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1_안마당 2_정자 3_바깥마당(주차장) 4_앞마당 5_가족마당



배치도

건축주 | 이경아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시공사 | (주)품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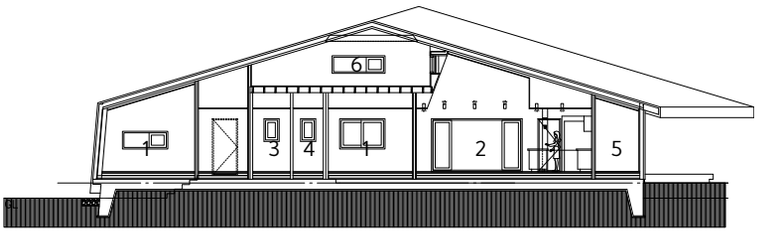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1074-11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234㎡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3.91㎡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2.1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2.47% (법정 20%)
용적률(Floor Area Ratio) | 9.9% (법정 10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1층
구조 | 경골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에코코트
- 내부 : 친환경벽지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07.01~2013.08.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09.01~2013.12.17
사진(Photographer) | 박보형 (Park Bo-h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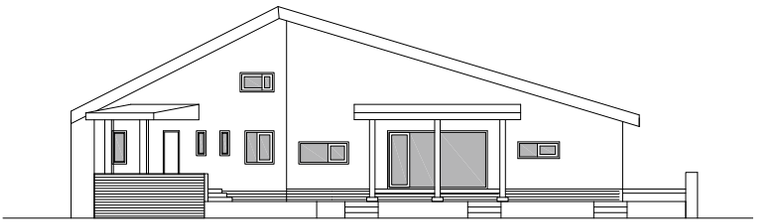
- 설계팀 : 최용석, 권성훈, 강현아, 김세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와이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라인이엔씨
  - 전기분야 : 라인이엔씨
  - 소방분야 : 라인이엔씨
  - 조경분야 :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Client : Lee Gyeong-a
Architect : Lee Hong-sig
Project Team : Choi Yong-seok / Kweon Seong-hun / Kang Hyun-a / Kim Se-jung
Location : 1074-11, Sang-ok-ri, Taean-eup, Taean-gun, Chungcheongnam-do, Korea
Structure : Wooden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Y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Line ENC CO., LTD.
Electrical Engineer : Line ENC CO., LTD.
Fire Engineer : Line ENC CO., LTD.
Landscape Architecture : Archiforum
Finishing
Exterier : Ecocoat
Interior : Eco-Friendly Wall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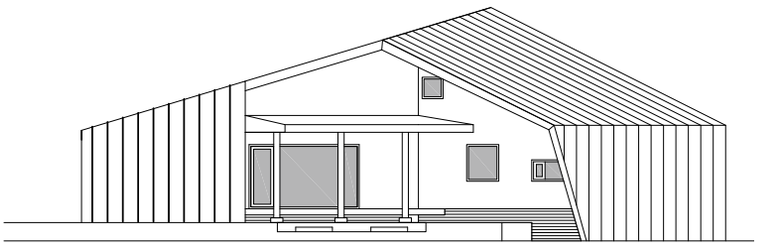
1_침실 2_거실 3_화장실 4_샤워실 5_다용도실 6_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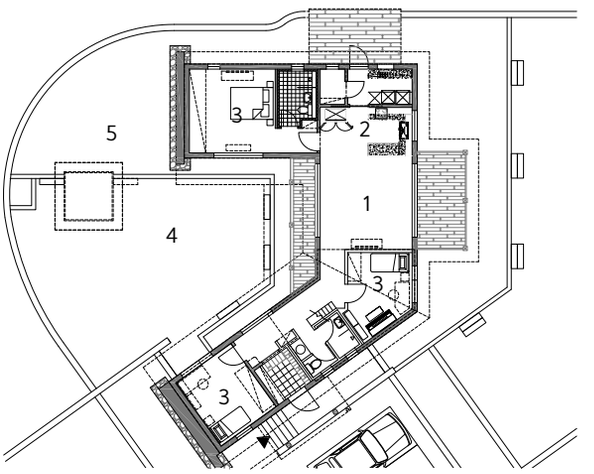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1층 평면도

1_거실 2_주방 3_침실 4_안마당 5_가족마당

1. 작품배경

상옥리 입구에 위치한 건축지는 차로에 인접한 경사지로 5가지 해결과제를 지닌 열린 공간이었다.

① 옹벽의 이용
② 건축지에 자리잡은 큰 소나무 2그루의 보존
③ 도로에서 진입하는 방법
④ 길가의 소음문제
⑤ 부지의 레벨조성 등의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그 해법은 한옥의 배치기법을 이용, 안과 밖의 배치로 앞마당과 바깥마당의 조성을 통해 열린 공간을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아늑하고 편안한 둥지로 승화시키는 것이었다. 방풍림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옹벽 아래 등나무를 심어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2그루의 소나무는 땅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조경용으로 보존했다.

2. 계획개념

1)배치개념
- 한옥의 배치기법
- 안과 밖의 배치로 앞마당과 바깥마당 조성
-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아늑하고 편안한 집
- 미기후를 활용한 배치(바람길, 일사량, 수체계, 녹지축 등을 고려한 배치)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흐름 배치

2)평면개념
- 남향배치 자연채광 실내로 적극유입
- 바람길(중정-툇마루-거실-대청마루-앞마당)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 가족공간과 개인공간, 옥외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계

(자연의 유입)

3)단면개념
- 층고를 이용하여 가족공간인 거실과 부엌에 개방감을 줌
-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자연지반 녹지율을 높이고 수 순환 체계가 원활하도록 함

4)입면개념
- 실내에서 조망권을 확보
- 한옥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도록 함

3. 건축물 특성 소개(생태·에너지 분야)

1)생태분야
- 기존자연에 연계된 녹지 축을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을 높이고 수순환 체계가 원활하도록 함
-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육생 비오톱을 조성
- 자연자원(표토, 자연석, 기존 나무)을 활용
- 실내로 자연을 유입(중정)

2)에너지 분야 (신. 재생에너지반영)
- 남서향 ㄷ자 형태로 배치하여 일조량을 증대
- 에너지성능의 극대화를 위해 북측 창호외피면적 최소화
- 바닥, 외벽, 지붕에 고효율 단열층과 열교차단 공간적용
- 기밀성 창호와 두께 52MM의 삼중유리시스템을 적용
- 과도한 일사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차양 장치를 적용
- 창호 주변 및 단열이 취약한 부분에 열교현상 방지조치
-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을 최소화
-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설비를 적용

1

2

3

4

1 _ 안마당 2 _ 안마당과 툇마루 3 _ 전경 4 _ 거실 5 _ 안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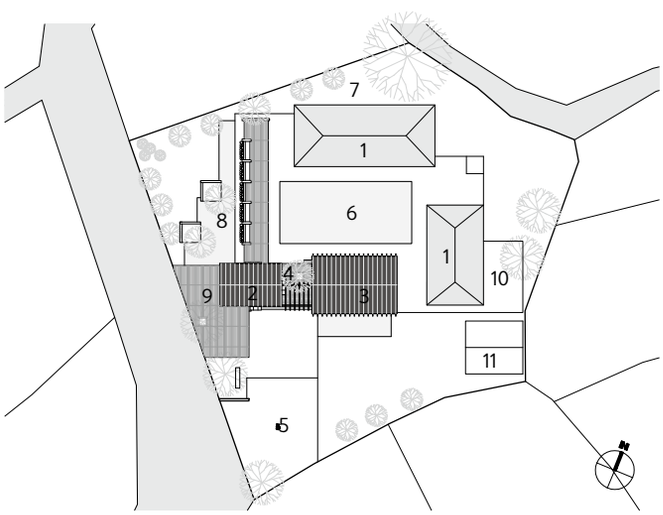
은재네 돌담집

Eunjae's Stone Wall Residence

설계자 | **현상훈**_KIRA
201 건축사사무소

201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며 서울시 공공건축가, 세종시 경관위원회 위원, 금산군 군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은재네 돌담집,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들식품 사옥, 가평전원주택 등이 있으며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우수상, 「2014 한국농촌건축대전」 본상을 수상하였다.
경계와 영역에 대한 '관계 맺기'를 통해 물리적 요소의 경계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함한 경계를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건축작업들을 하고 있다.

1 _ 기존 초가 2 _ 전시장 / 사랑방 3 _ 아동 도서관 4 _ 마루 5 _ 진입마당 6 _ 안마당
7 _ 뒷마당 8 _ 후정 9 _ 야외 전시 / 휴게 공간 10 _ 작업공간 11 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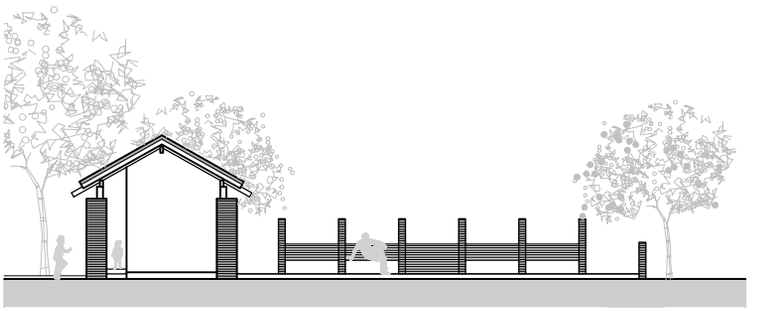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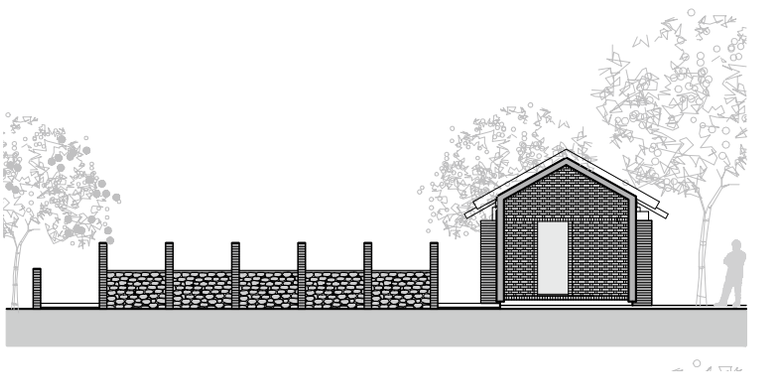
건축주 | 신현민
감리자 | 201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201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68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96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7.4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07.4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1.1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1.12%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1층
구조 | 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화산석벽돌, 스타코플렉스
- 내부 : 수성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4~2013.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9~2013. 12
사진(Photographer) | 현상훈(Hyun, Sa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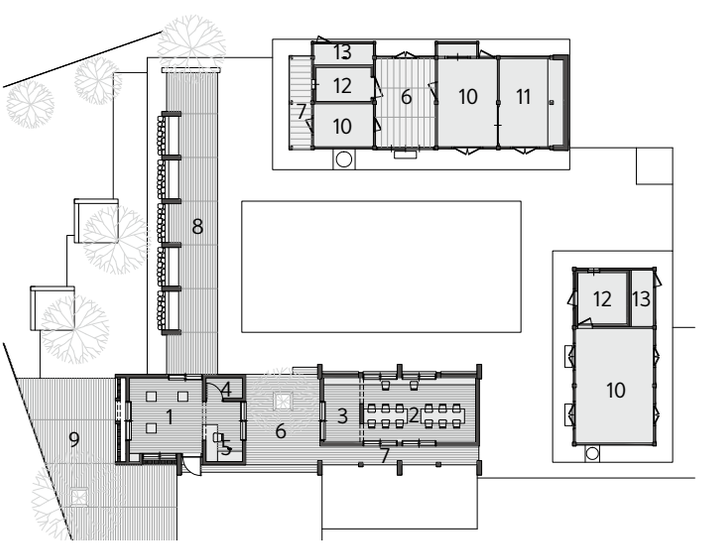
· 설계팀 : 현상훈, 유근필

Client : Shin, Hyun-min
Architect : Hyun, Sang-hoon
Project Team : You, Geun-pil
Location : yongmun-myeon, yecheon-gun, gyeongsangbuk-do, korea
Structure : wooden structure
Finishing
Exterior : volcanic stone brick, stucoflex
Interior : water paint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1 _ 전시장 / 사랑방 2 _ 아동 도서관 3 _ 전실 4 _ 창고 5 _ 작업공간
6 _ 마루 7 _ 툇마루 8 _ 가족공간 9 _ 야외 전시 / 휴게 공간 10 _ 방
11 _ 부엌 12 _ 화장실 13 _ 보일러실

작년 이맘 때 젊은 동갑내기 부부가 설계의뢰를 했다.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가 살다보니 살고 있는 초가에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은 전통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경북 예천의 금당실마을 입구에 있다고 했다. 부부는 전통마을에 어울리는 집과 양봉을 하는 건축주의 직업을 고려한 전시공간이면서 마을 사람들이 사랑방으로 쓰기도 하는 전시장과 마을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했다.

금당실마을은 우리나라의 십승지 중 한 곳으로 600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조선시대 고가옥과 미로로 연결되어 있는 돌담길을 간직한 전통마을이다. 더불어 여느 시골마을처럼 방치된 흙집, 급조된 초가, 양옥집과 슬레이트지붕, 시멘트기와, 금속기와를 얹은 단층집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혼재를 건축적 어휘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기존 초가와 마당의 진입방법, 향과 돌담의 경계에 의해 증축부분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기능적 구획에 의해 전시장/사랑방과 아동도서관을 두개의 매스로 구분하고 ㅁ자형 배치와 채나눔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연계성과 영역성를 확보하였다.
금당실마을로 들어서면서 마주치는 전시장은 돌담의 형태와 양봉과 관련된 전시공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매스와 전시장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동도서관 남측면에는 툇마루를 두어 도서관 내부에서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이들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전통주거에서의 칸의 개념, 내·외부공간의 다양성과 경사천장을 노출하여 작은 전용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각, 공간적 확장성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적 외장요소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의 형태들을 재해석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입면을 구성하였다.

사적영역을 공유공간으로 확장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부부의 뜻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으로 인근에서 구해온 돌과 자갈, 짚으로 돌담쌓기, 마당 자갈깔기, 초가 지붕잇기 등 외부의 모습들이 완성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외부공간들도 그렇게 채워질 것이다.

부부의 처음 의도처럼 마을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동네 꼬마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층 한층 쌓여 나가는 돌담처럼 시간의 켜들이 쌓여 금당실마을에 자연스레 스며든 집이기를 기대한다.

1 _ 북측면에서 안마당 2 _ 안마당 담장 3 _ 처마 4 _ 남서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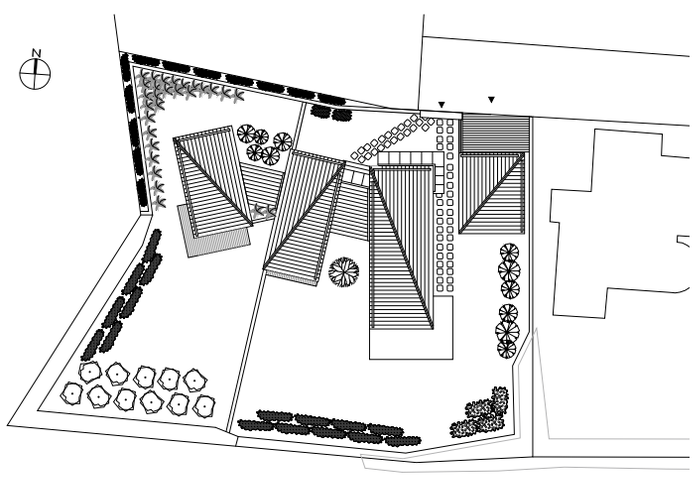
3

4

하심당
HASIMDANG

설계자 | **조민석**_KIRA
단아건축사사무소

단아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THE WALL(2004 서울시건축상 장려상), 화원종합사회복지관(2006 서울시건축상 장려상), 단원어린이도서관(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구립대치어린이집(2009 서울시건축상 우수상), 구립신사어린이집(2012 서울시건축상 우수상), 강북보육여성정보센터(2014 서울시건축상 우수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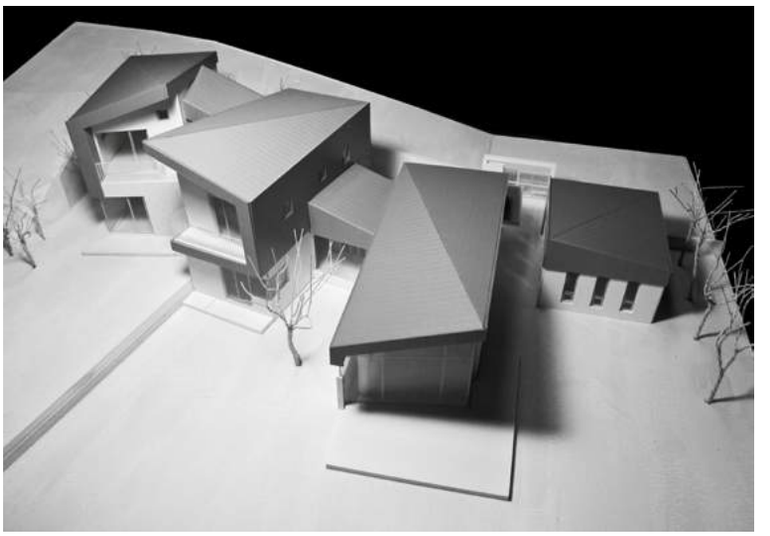
배치도

건축주 | 양만호
감리자 | 단아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건축주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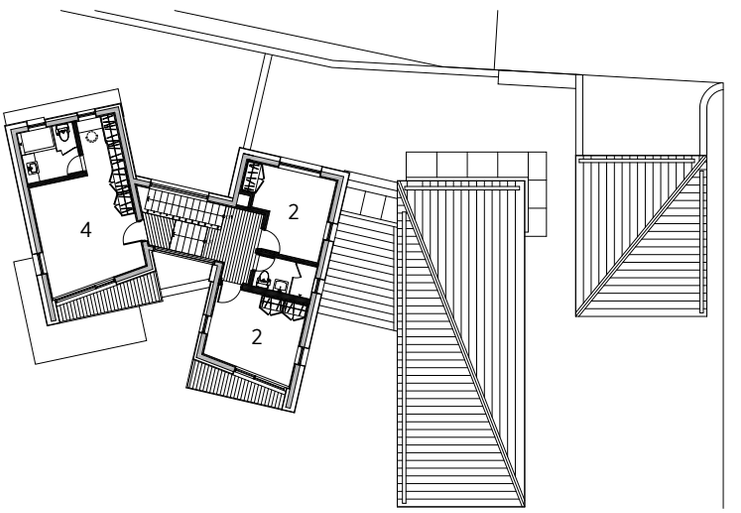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93-98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117.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1.43㎡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5.3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8.03%
용적률(Floor Area Ratio) | 24.2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산화동판, 고흥석버너구이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3 ~ 2012.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7 ~ 2013. 09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un Jun-hwan)

- 설계팀 : 권은보, 최진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우구조
  - 기계설비분야 : 유진기술사
  - 전기분야 : 조은기술단
  - 소방분야 : 유진기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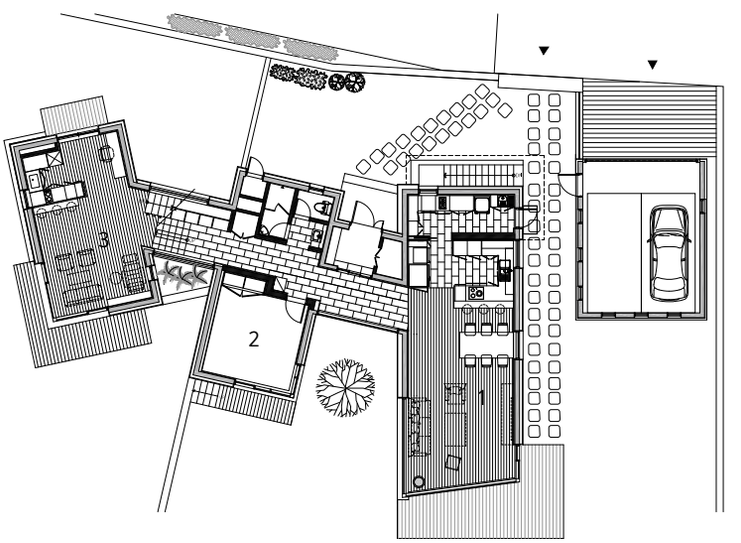
Client : Yang, Man-ho
Architect : Cho, Min-suk
Project Team : Kwon, Eun-bo / Choi Jin-hyup
Location : 193-98, Maseogu-ri, Hwado-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awoo Structure
HVAC Engineer : Youjin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Joeun Engineering
Fire Engineer : Youjin Engineering
Finishing : Oxidized copper plate, Goheung stone



모형사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_거실 2_침실 3_가족실 4_안방

하심당 -마음을 내려놓는 곳

하심당은 건축주의 장인이 지은 이 주택의 이름이다.
혹시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나 않을까 하여 이곳에서 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는 장인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자연속의 한 점 건축으로서 낮은 자세로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건축이 되길 바래본다.

다양한 뷰를 가진 펼쳐진 집

전체적인 주택볼륨을 4개의 채로 나눈 다음 조망, 빛의 유입, 대지형상과 단차를 고려하여 각 채의 볼륨과 좌향 그리고 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지 안에 펼쳐진 각 채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전망을 가지게 되었고 각기 다른 부피감을 가지고 대지위에 앉아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된다.

집속의 산책로

집안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싶다.
복도와 계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외부공간과 융합된 집속의 작은 산책로를 만든다. 복도와 계단은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닌 자연을 즐기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변화무쌍한 내부공간

내부는 바닥과 천정높이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공간감을 연출하였다. 또한 스킵플로어 방식을 활용하여 각 실의 높이가 아래위로 달라짐으로 실과 실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 아니라, 시선이 계단을 지나 건너편 공간까지 닿게 하여 좀 더 확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을 향해 날개 짓 하는 지붕

지붕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은 주변의 산세를 따르고 각 채의 지붕은 가볍게 하늘 위를 날아올라 저 멀리 자연을 향해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과 같은 형태감을 연출하였다.

1

2

3

4

1 _ 잔듸마당 2 _ 1층 계단 3 _ 중층 계단 4 _ 가족실 주방 5 _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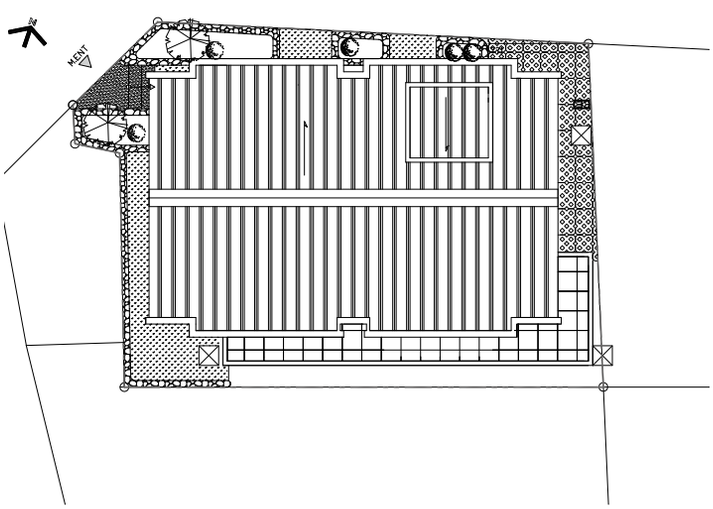
5

하림재

Ha Rim Jae

설계자 | **문철수**_KIRA
두양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및 건축사이다. 대표작으로 지리산 생태과학관, 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이병주 문학관, 갑을가든, 옥산정형외과, 가야자모의원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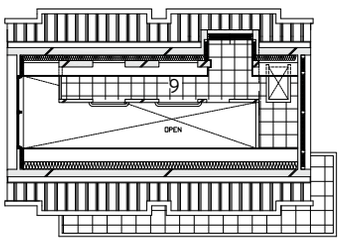
건축주 | 주용태
감리자 | 두양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홍준표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49-16번지
주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실)
대지면적(Site Area) | 80.8㎡
건축면적(Building Area) | 53.88㎡
연면적(Gross Floor Area) | 78.2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34%
용적률(Floor Area Ratio) | 86.13%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칼라강판
- 내부 : 수성페인트, 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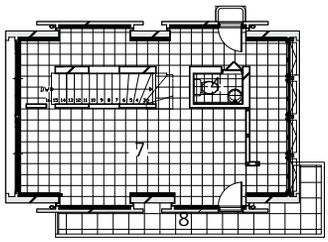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5. 01~2015.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5. 03~2015. 08

- 설계팀 : 문철수, 박광원, 유동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SNS구조
  - 기계설비분야 : 진일설비
  - 전기분야 : 진일설비
  - 소방분야 : 진일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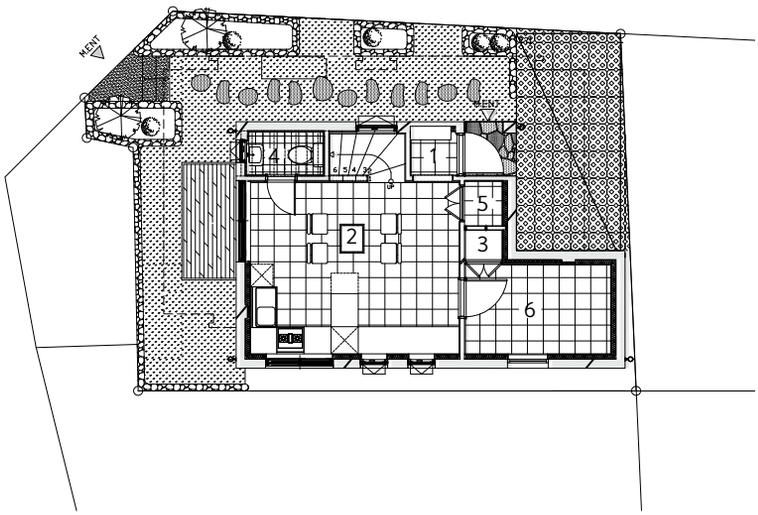
Client : Joo, Yong-tae
Architect : Moon, Chul-soo
Project Team : Moon, Chul-soo / Park Kwang-won / Yoo Dong-hoon
Location : 49-16, Jang Dae-Dong, Jin-Ju, G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Hong, Jun Pyo
HVAC Engineer : Jin-il Eng.
Electrical Engineer : Jin-il Eng.
Fire Engineer : Jin-il Eng.
Finishing
Exterior : Exposed mass concrete, colored-steel sheet
In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다락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_현관 2_거실 3_붙박이장 4_욕실 5_창고
6_침실 7_전시실 8_발코니 9_다락

대지 면적 27.5평, 진주시 구도심 주택가 좁은 골목에 접한 조건을 들은 그 순간, 이 기념관 주택 작품에 대한 묘한 승부욕을 느꼈다.

여럿 되는 형제들이 공동으로 받은 이 유산의 땅은 도로로 이리 저리 잘려나가고 손톱만큼 남았지만, 먼저가신 부모님과 자신들의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다고 했다.
반면에, 그런 의미를 살기기에 충분치 못한 예산은 또 다른 한계로 다가와, 그냥 조립식 건물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建築士를 찾았다고 했다.
건축주와의 묘한 운명이 교차하여, 기어코 내 손에 들어온 이 대지에 '그럴 순 없지만 크고 깊은' 건물을 지으려 마음먹었다.

사실 건축사가 '마음먹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한 짓인가.
그 간의 세월을 통해 '다시는 마음먹지 말아야지'는 스스로 뼛속에 각인해 놓은 말인데, 나는 또 마음을 먹고 말았다.
대지면적 27.5평에 건폐율 60%, 쓸 수 있는 최대 건폐 면적이 16.5평.. 주차1대, 조경면적 빼고.. 이리저리 꿰맞춰 대충 계획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속에 '직선의 긴' 진입로와 '장중하게 큰' 볼륨을 가진 기념 전시실을 가지며,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덩어리(mass) 구성을 가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꽤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

1층과 2층의 메인 볼륨을 어긋나게 배치하여 입체적 매스 구성과 '긴' 진입로를 해결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때문에 강요받은 경사지붕은 '큰'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하였다.
전시실의 기능은 2층 내부의 작은 '전시 복도'와 상대적으로 큰 '전시 홀'의 이질적 공간을 병치시킴으로서 공간감의 확장을 바랐다.
계단으로 2층에 올라오면 좁고, 낮고, 작은 복도를 다 둘러 보고난 후 비로소 큰 전시홀로 진입하게 유도했는데, 3차원 공간 속을 체험하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마도 실제보다 더 큰 전시홀로 느낄 것이다. 좁고 긴 전시복도는 넓은 전시벽면을 필요로 하는 전시관의 기능을 작지 않게 감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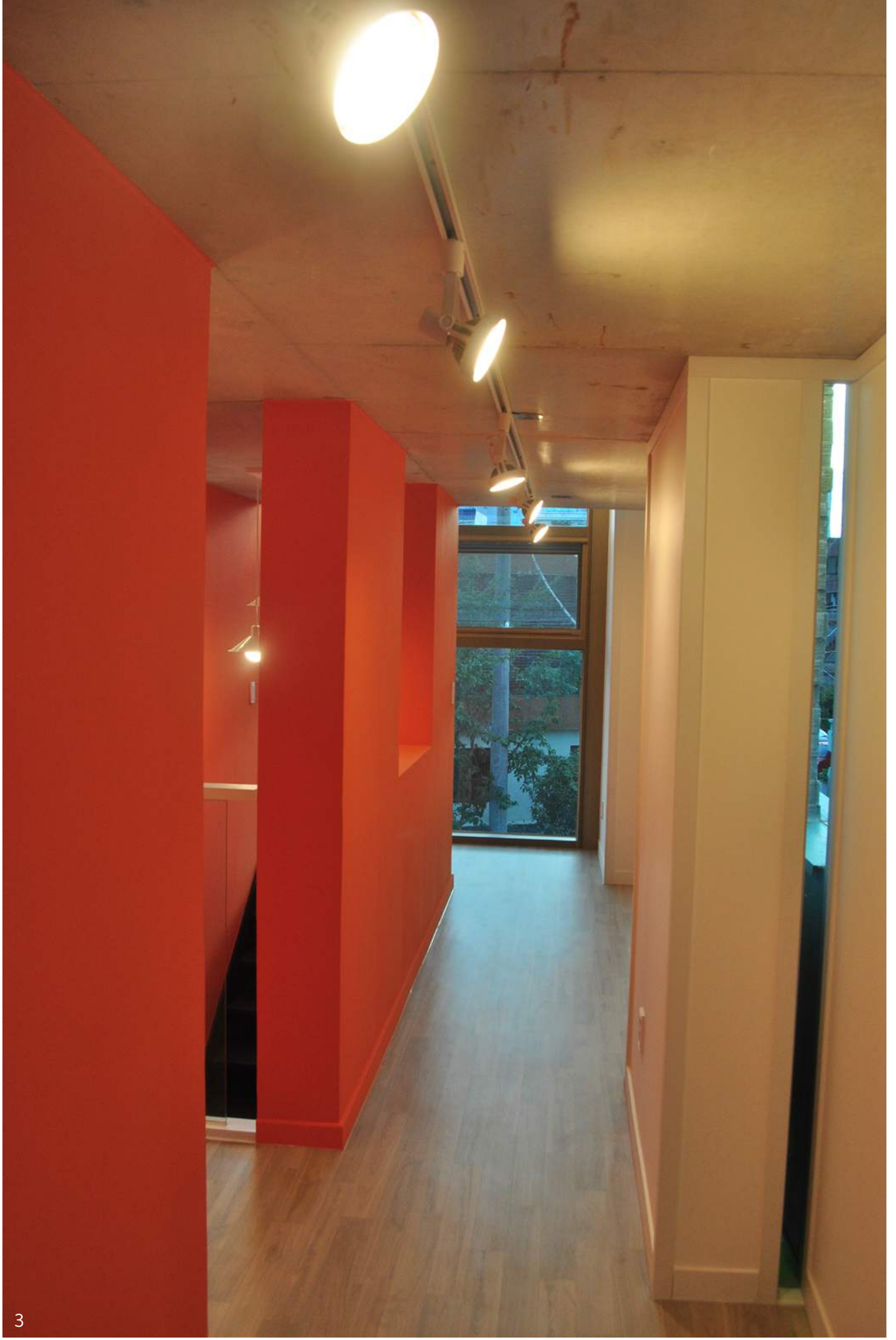
굳이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기념실의 특성상 공간의 강조를 위해 주황색의 원색을 사용하였는데, 아마도 가장 싸게 효과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이리라.
낮이건 밤이건 광선에 의해 반사된 붉은 빛은 흰 벽면에 채색될 것이고, 소박하지만 인상적인 효과를 전달할 것을 기대 하였는데, 실제 외부 청동색 외장 철판 색과 대비되어 밤이면 매우 색채감 있는 '화려한' 야경이 연출되는 것은 우연히 얻은 재미가 아닌가 한다.

1층 10평, 2층 14평, 다해서 24평의 '직선의 긴 진입로'와 '장엄하게 큰 볼륨'을 가진 '큰' 기념전시관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1

1_ 1층 내부 2_ 큰 전시홀 3_ 작은 전시 복도

2



3

부산 통합청사 신축공사 당선작

Busan Integration Building Competition

발주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계자 : 이용호_KIRA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설계 :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윤택용, 이상진, 강판석, 김정환, 이은애, 권현수, 정호산, 이정호(이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성민, 정동원, 김종석(이상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선희(상지건축)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14(거제동501번지)

대지면적 5,962.00㎡

건축면적 2,914.61㎡

연 면 적 38,415.45㎡

건 폐 율 48.89%

용 적 률 362.30%

규 모 지하 4층, 지상 10층

마 감

- 외부 : 석재패널, 금속패널

i-link (아이링크)

Interesting(흥미로운) - 문화와 지역을 엮다.
Intelligent(지능/최첨단) - 최첨단 기능을 엮다.
Integrative(통합) - 3개 기관을 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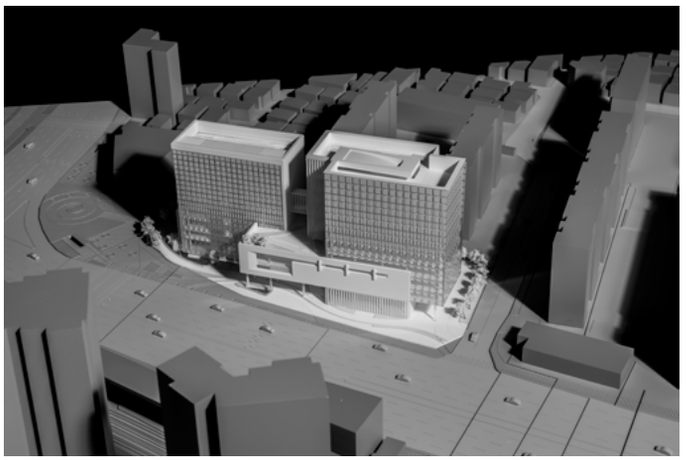
부산 통합청사가 들어서게 될 대지는 거제역 사거리의 넓은 대로변, 노후화된 주거지역이 밀집된 구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부산 통합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졌을 때, 다소 밋밋하고 평범한 이곳이 활기를 띤 지역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부산 풍경을 매스 디자인에 담아내고 저층부 공간은 건물로 채우는 대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외부 공간으로 비워 내,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청사의 모습을 담아내려 하였다. 외부공간을 단순히 비워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하철 연결통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가로 계획으로 확장하여 거제역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통합청사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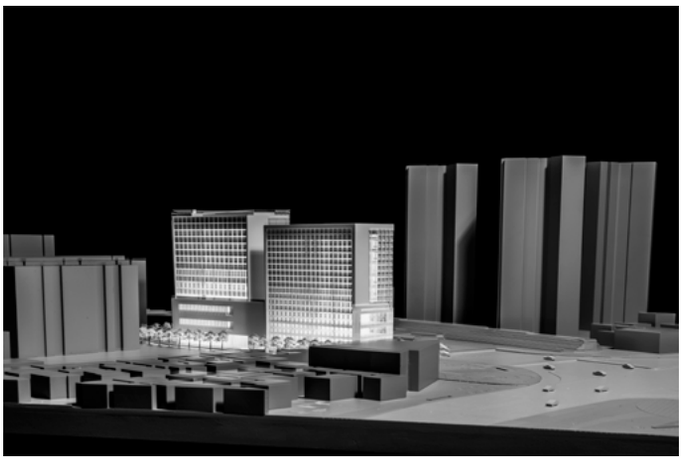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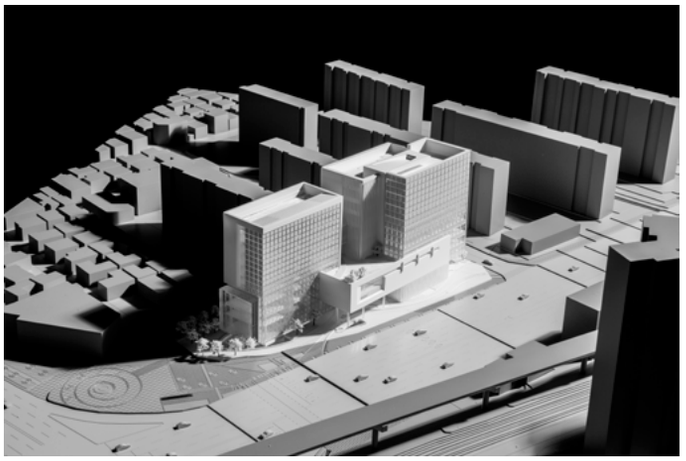
지침에서 요구하는 실 면적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대지에 청사가 자리하게 되면 자칫 주변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환경적으로 도시의 인상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층부를 적극적으로 비우고 그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폐쇄적인 공공청사가 아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청사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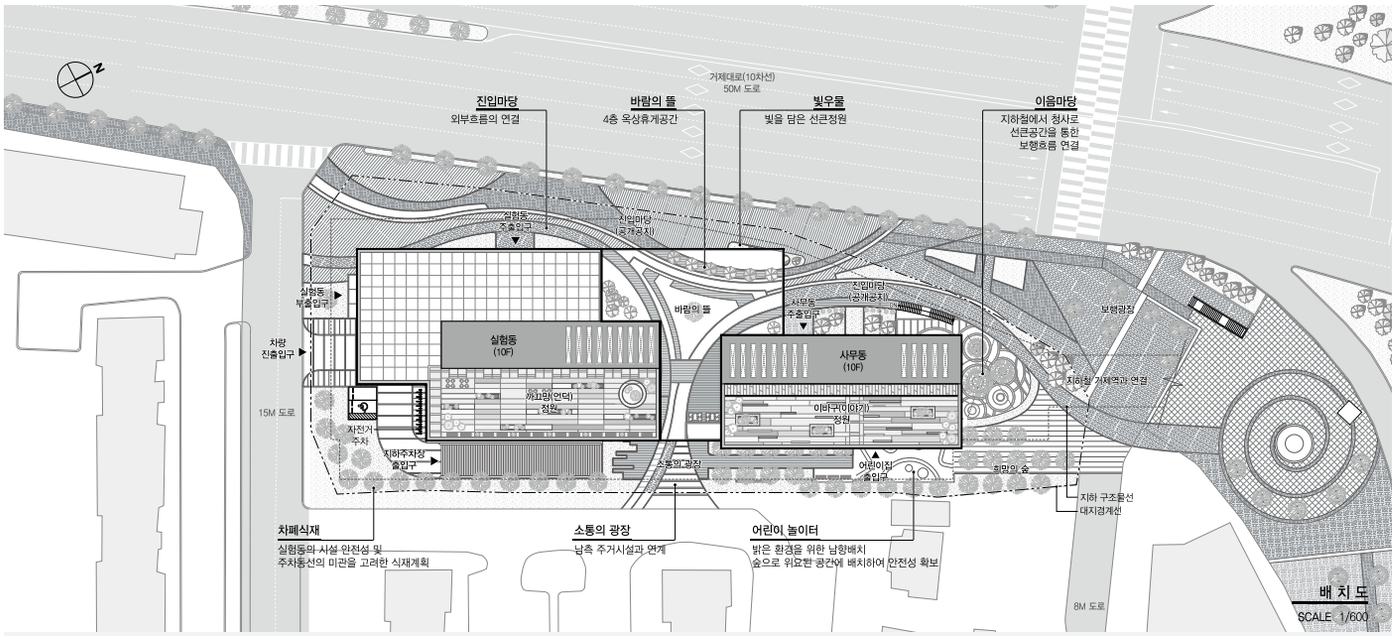
입면계획

셀(데이터, 정보), 셀들의 합(정보수집, 데이터추출), 셀의 변화(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추출 및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도출하는 3개 기관의 통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각각의 셀들은 단순한 입면 패턴에 그치지 않고 실의 성격에 따라 창호 면적 비를 달리 하여 친환경 청사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함과 동시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면 디자인은 도시 경관에 새로운 인상을 심어준다.









진입마당

외부 흐름의
연결 및 개방감
형성

바람의 뜰

공공영역과
실험, 업무 영역을
잇는 전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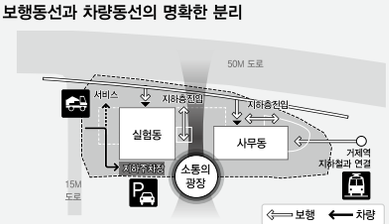
소통의 광장

외부 흐름의
내부 유입 및
유기적 연계

이음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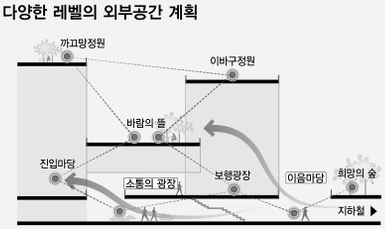
지하철에서의
보행 흐름 연계 및
내 · 외부 소통의 공간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명확한 분리



- 도심 교통흐름을 고려한 이면도로 진입
- 열린광장 계획으로 보행접근 편의성 향상

다양한 레벨의 외부공간 계획



- 다양한 높이로 외부공간이 확장되어, 다채로운 공간의 경험 제공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공사 당선작

Guri-si Women's Center

발주자 : 구리시

설계자 : 조영수_KIRA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철홍, 이길수, 최홍열, 장동수, 전재만, 고봉국, Tomasz Drgas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교문동 390, 구리아트홀)

대지면적 24,187㎡

건축면적 6,889.02㎡
(기존 구리아트홀 4,367.53㎡)

연 면 적 21,223.35㎡
(기존 구리아트홀 10,575.04㎡)

건 폐 율 28.48%

용 적 률 60.83%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마 감

- 외부 : 고밀도목재판넬, 알루미늄판넬, 테라코타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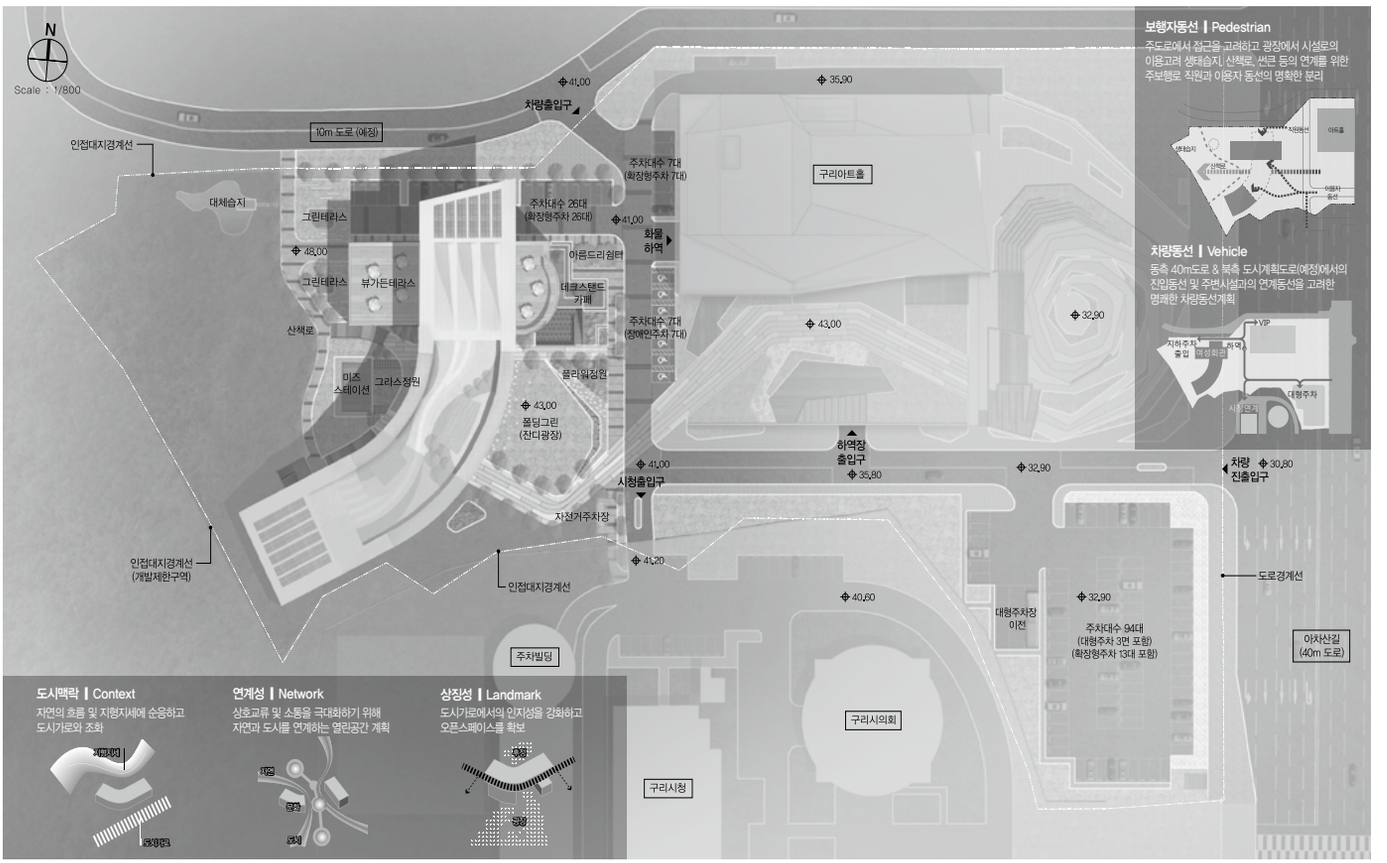
아차산 자락의 자연의 흐름, 고구려 시대의 역사적 흐름, 장소의 연속성을 통한 도시적 흐름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형태와 아차산의 지세 흐름을 반영한 유선형 매스를 기반으로, 주도적 사회참여를 했었던 고구려 시대의 여성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방된 상층부 매스를 형성하고, 당시 입었던 색동치마와 주름치마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상징적인 매스를 구현하였다.
자연과 도시의 통경축을 통하여 이문안저수지-아트홀 옥상광장-진입광장-후면마당-아차산을 연계하고, 각각의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여 연속되게 하였다.

자연 속에서 인간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문화·교육·창조를 이룰 수 있는 여성문화의 장. 그리고 자연과 도시,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개의 흐름... 자연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공간 위에 역사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인간과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구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육과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성회관을 제안한다.

배치계획

도시와 자연, 인간과 환경의 상호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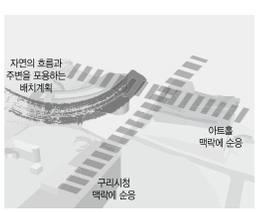


입면계획

고구려와 현대 여성상의 해석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형성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
도시를 향한 상승적 이미지
남측 개방형 열린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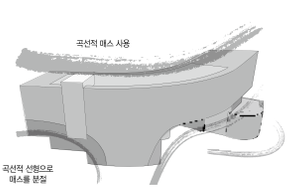
자연 및 질서에 순응
아트홀의 도시적 맥락에 순응
아차산의 자연적 흐름에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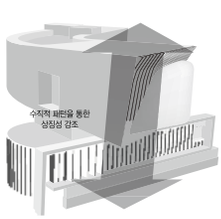
자연의 흐름을 유입
건축의 틀을 통하여 자연과
도시를 향한 흐름을 유입

지역성, 역사성을 고려한 특화요소 사용으로 입면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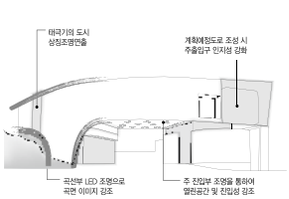
여성적인 곡선
매스에 곡선적 요소를 사용하여
자연과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



고구려적 패턴
고구려 여성의 상징적 요소인 주름치마를
수직적 패턴으로 형상화



상징적 경관연출
야간 조명연출을 통해 매스와 패턴을 강조하여
여성회관의 랜드마크적 이미지 연출



Mass Process

현대여성의 소양
내적 안정감을 통한 진취적 사회참여
여성적 부드러움 위에 고구려의 기상을 쌓다

여성의
진취적 사회참여

고구려 여성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고구려적 매스는
개방적이고 상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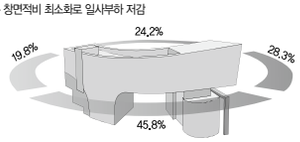
여성의
내적 안정감

여성의 성향은
부드러운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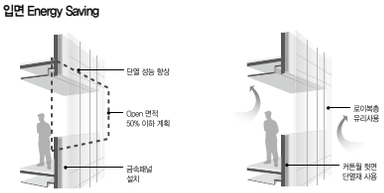
여성적 매스는
유선형이고 수평적이다

에너지 절감계획

창 면적비 40% 이하
서측, 북측 창면적비 최소화로 일사부하 저감



입면 Energy Saving



50% VISION 계획

고성능 재료 적용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공사 당선작

Guri-si Women's Center

발주자 : 구리시

설계자 : 조영수_KIRA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철홍, 이길수, 최홍열, 장동수, 전재만, 고봉국, Tomasz Drgas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교문동 390, 구리아트홀)

대지면적 24,187㎡

건축면적 6,889.02㎡
(기존 구리아트홀 4,367.53㎡)

연 면 적 21,223.35㎡
(기존 구리아트홀 10,575.04㎡)

건 폐 율 28.48%

용 적 률 60.83%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마 감

- 외부 : 고밀도목재판넬, 알루미늄판넬, 테라코타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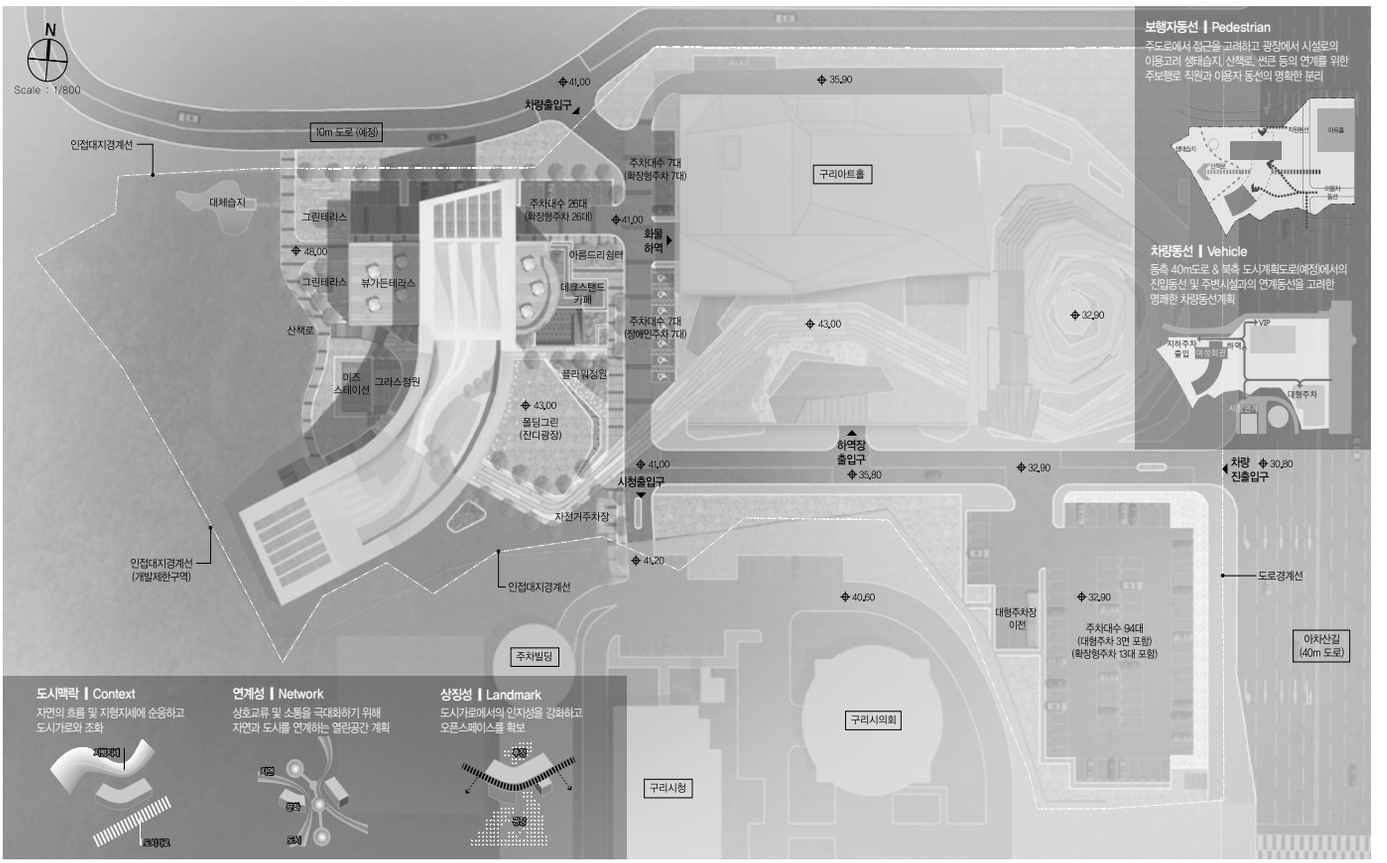
아차산 자락의 자연의 흐름, 고구려 시대의 역사적 흐름, 장소의 연속성을 통한 도시적 흐름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형태와 아차산의 지세 흐름을 반영한 유선형 매스를 기반으로, 주도적 사회참여를 했었던 고구려 시대의 여성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방된 상층부 매스를 형성하고, 당시 입었던 색동치마와 주름치마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상징적인 매스를 구현하였다.
자연과 도시의 통경축을 통하여 이문안저수지-아트홀 옥상광장-진입광장-후면마당-아차산을 연계하고, 각각의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여 연속되게 하였다.

자연 속에서 인간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문화·교육·창조를 이룰 수 있는 여성문화의 장. 그리고 자연과 도시,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개의 흐름... 자연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공간 위에 역사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인간과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구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육과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성회관을 제안한다.

배치계획

도시와 자연, 인간과 환경의 상호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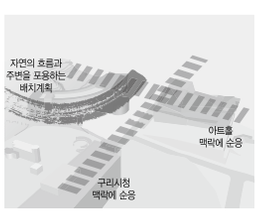


입면계획

고구려와 현대 여성상의 해석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형성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
도시를 향한 상승적 이미지
남측 개방형 열린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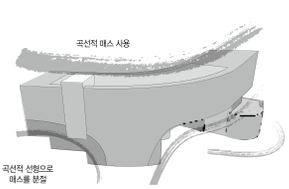
자연 및 질서에 순응
아트홀의 도시적 맥락에 순응
아차산의 자연적 흐름에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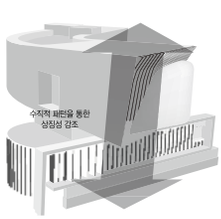
자연의 흐름을 유입
건축의 틀을 통하여 자연과
도시를 향한 흐름을 유입

지역성, 역사성을 고려한 특화요소 사용으로 입면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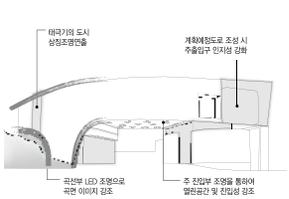
여성적인 곡선
매스에 곡선적 요소를 사용하여
자연과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



고구려적 패턴
고구려 여성의 상징적 요소인 주름치마를
수직적 패턴으로 형상화



상징적 경관연출
야간 조명연출을 통해 매스와 패턴을 강조하여
여성회관의 랜드마크적 이미지 연출



Mass Process

현대여성의 소양
내적 안정감을 통한 진취적 사회참여
여성적 부드러움 위에 고구려의 기상을 쌓다

여성의
진취적 사회참여

고구려 여성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고구려적 매스는
개방적이고 상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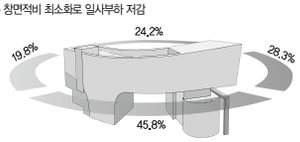
여성의
내적 안정감

여성의 성향은
부드러운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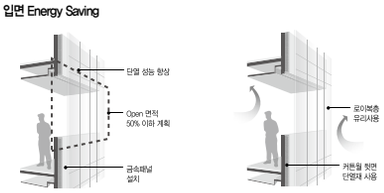
여성적 매스는
유선형이고 수평적이다

에너지 절감계획

창 면적비 40% 이하
서측, 북측 창면적비 최소화로 일사부하 저감



입면 Energy Saving



50% VISION 계획

고성능 재료 적용

serial

글. 김홍기 |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8.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9.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10. 반 되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 회장을 역임했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로빈슨 쿠르소가 건축가라고> <건축조형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에 관한 강연 및 연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오디세이 5 _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Louis Kahn and Kimbell Art Museum

그림 1) 킴벨미술관 전경

그에 대해 얘기할 때면 오래전 고대 영웅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 원시적인 힘, 최대한의 무게. 원형과 질서 그리고 기하학. 그는 영원히 남는 것을 만들려고 했어. 영원한 작품, 그 친구가 원한 건 그거야.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려 했지. 그가 빛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해 봐. 머리칼이 곤두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영원이 남는 거니까.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은 나한테 반응을 주는 생명체를 만드는 일이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손의 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경이로움으로 누군가에게는 기술의 기적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겠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처럼. 한번 들어왔으면 그걸 다시 찾게 되고, 알고 있어도 다시 들어야하는 것처럼.

건축역사가이자 비평가 빈센트 스컬리의 루이스 칸의 건축에 대한 회고를 옮긴 것이다. 4년 전 포트워스에 위치한 킴벨미술관과 뉴 헤이븐의 예일대학 미술관을 들렸을 때 빈센트 스컬리의 레토릭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대학원과정에서 현대건축에 대해 강의할 때면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학생들에게 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베토벤의 5번 교향곡처럼 시간이 지나도 명품으로 존재하는 게 고전이라고.

'건축의 시학'(Poetic of Architecture)을 쓴 안토니 안토니아데스(Anthony Antoniades) 역시 킴벨미술관을 그리스 고전 명작에 비유한다. 완벽성의 기준으로 볼 때 고전건축의 수준에 버금가는 건축물로 재료의 표현과 구성적 질서의 통합성을 입증한 최고 수준의 건축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본질'을 향한 루이스 칸의 건축 중에서도 킴벨미술관은 가장 완성도 높은 건물로 꼽힌다. 지어진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품으로 존재하는 킴벨미술관. 그 끌림의 이유. 현지를 방문해 빛과 침묵, 공간을 체험한 자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건축의 아우라, 킴벨미술관 입구에 서서.

킴벨미술관이 위치한 포트워스는 댈러스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70만 명의 도시다. 포트워스시 중심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트리니티 공원(Trinity Park)이 있고 그 인근에 킴벨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 지정된 에이몬 카터구역의 끝자락으로 주변에는 필립 존슨이 1961년에 설계한 에이몬 카터 미술관(Amon Carter Museum)을 비롯하여 2002년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완공된 포트워스 현대미술관과 최근 완공된 렌조 피아노 파빌리온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을 답사할 때면 늘상 진입의 여정을 즐긴다. 에둘러 우회하여 멀리서 접근해보는 습관은 킴벨미술관에서도 여지없이 배어

그림 2) 진입로에서 바라본 킴벨미술관

나온다.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응시의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은 거장의 작품을 단박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건축을 품고 있는 장소의 혼을 탐침하기 위한 것이다.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커튼월 구조의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킴벨미술관 바로 옆에서 위용을 뽐내지만, 20여 미터가 넘어 보이는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거대한 녹슨 철제 조각이 킴벨미술관 들머리에 홀로 서 있지만, 낮게 드리운 잿빛 킴벨미술관의 지붕선에 시선이 고착되어 있는 것은 루이스 칸이 남긴 유산을 대하는 설렘, 그 현존성을 탐색하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림 3) 16개의 볼트로 구성된 킴벨미술관

진입로에서 보면 킴벨미술관의 지붕선은 종묘의 용마루선처럼 무뚝뚝한 일직선이다. 정면의 폭은 개략 90미터. 종묘의 용마루선보다 10미터 짧다. 30미터 길이의 볼트 지붕 3개가 약간의 틈새를 두고 나란히 연접해 만들어낸 직선으로, 발걸음을 측면으로 옮겨야만 연속적인 리듬을 낳는 궁륭형 볼트(vault) 지붕과 만날 수 있다. 미술관 1층 사무실 입구로 들어서면 킴벨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다. 왕가의 유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유럽 미술관과는 달리 미국의 미술관들은 재벌들의 컬렉션과 크고 작은 기증자에 의해 일궈진 경우가 대부분이다.[1]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위대한 작품을 갖춘 미술관으로 성장한 배후에는 문화예술에 인식이 깊었던 자본가들로 통칭되는 미술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킴벨미술관 역시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사업가 케이 킴벨 부부의 자본과 소장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킴벨미술관 탄생의 배후

텍사스 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인 1886년. 인구가 몇 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오크우드에서 케이 킴벨((Kay Kimbell)은 태어난다. 10대 중반 학업을 그만 두고는 곡물회사의 사원으로 일을 시작한 킴벨은 경험을 토대로 조그만 제분소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킴벨 제분소의 모태가 된다.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린다. 밀가루, 곡물, 식료품, 보험회사, 대형 마켓에 이르기까지 70여개가 넘는 방대한 회사를 거느리는 대부호가 된다. 스물네 살의 나이에 벨마 풀러(Velma Fuller)와 결혼한 그는 1924년 댈러스 인근 포트워스에 정착. 사망하는 1964년까지 40년 동안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1931년 3월, 포트워스 공립도서관 로비에서 개최된 17-18세기 유럽 화가들의 전시회를 관람한 벨마는 남편을 설득해 영국 화가 윌리엄 비케이(William Beechey)가 그린 초상화 한 점을 구입한다. 킴벨부부는 이 과정에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컬렉터이자 화상 베르트람 뉴하우스(Bertram Newhouse)와 친분을 맺게 되고, 그를 통해 미술 컬렉션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킴벨 부부는 베르트람 뉴하우스를 통해 십여 점의 미술작품들을 추가로 구입했다. 영국 출신 화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었지만 후기 르네상스의 작품

1)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차르의 소장품을, 루브르 미술관은 프랑스 왕가의 소장품을, 빈미술사 박물관이 합스부르크 왕조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개관된 것처럼 유럽의 미술관은 개인이 아닌 왕가의 유산을 기반으로 국가적 지원 아래 개설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미술관은 자본가의 후원에 의해 컬렉션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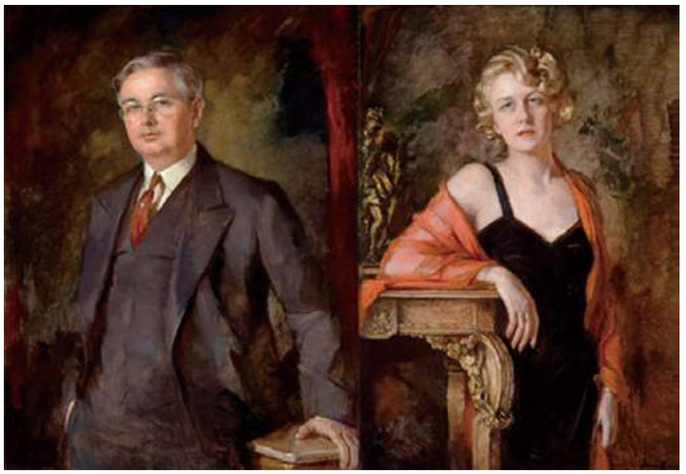


그림 4) 다리오 라파포트(Dario Rappaport)가 1935년 완성한 킴벨 부부 초상.

그림 5) 벨마 킴벨의 킴벨미술관 착공식(1966년 7월)

도 몇 점 포함돼 있었다. 영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킴벨은 열렬한 영국 미술 애호가였다. 특히 17-18세기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선호했다. 컬렉션이 증가하자 킴벨 부부는 1936년 킴벨재단을 설립했고, 그들의 컬렉션은 포트워스 도서관과 교회, 대학 등지에 임대 전시되면서 지역 미술을 리드해 나갔다. 1960년대 작품 수는 3백점을 돌파했다. 평소 자신이 소장한 작품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케이 킴벨이 1964년 4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자 벨마는 남편이 사망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산을 공익재단인 킴벨미술재단에 기증한다고 발표한다.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했다. 벨마는 친지와 기업인 그리고 재산 법률 고문으로 구성된 6인 이사회를 결성하고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관장 리처드 브라운(Richard F. Brown)을 관장으로 영입했다. 브라운에게 최초로 부여된 임무는 미술관을 설계할 건축가를 선정하는 일. 브라운은 예일대학 미술관을 설계한 루이스 칸을 설계자로 지목한다. 킴벨미술관의 컬렉션 정책 속에는 묵시적인 규정이 있었다. 193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과 미국 미술품은 컬렉션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미술품을 소장한 아몬 카터미술관과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전의 유럽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킴벨미술관은 1987년 1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카라바지오의 걸작 카드놀이꾼(The Cardsharps, 1594)[2]을 구입했다. 콜로나 스치아라(Colonna Sciarra) 가족이 소장했던 이 작품은 1890년대 갑자기 사라진 후 무려 한 세기 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1987년 유럽의 개인 컬렉션에 갑자기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19세기 신고전주의 조각의 거장 안토니오 카노바의 '여인의 두상'(Idealized Head of a Woman, 1817)을 비롯해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의 대가 카스파 프리드리히의 작품과 사실주의의 쿠르베와 코로, 인상파의 모네, 야수파의 마티스, 입체파의 피카소의 작품을 구입했다. 작품구입은 필즈베리 관장 주도로 이루어졌다. 뉴욕타임즈지의 미술평론가 존 러셀이 미술관 전문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2) 콜로나 스치아라(Colonna Sciarra) 가족이 소장했던 이 작품은 1890년대 갑자기 사라진 후 무려 한 세기 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1987년 유럽의 개인 컬렉션에 갑자기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라고 평했던 필스베리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 동안 관장직을 맡으면서 컬렉션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3)]

그림 6) 카라바지오, 카드놀이 사기꾼, 킴벨미술관 소장, 1594-95

필즈베리가 컬렉션에서 크게 공헌하였다면 초대관장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은 미술관 건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킴벨미술관 설계가 발주되어 완공단계에 이르는 5년의 기간이다. 최고의 완결성을 갖춘 미술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고의 명품미술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과 화합의 과정을 추적해 보자.

건립의 조역, 마샬 메이어스와 리처드 브라운

킴벨미술관이 완성되고 2년이 지난 1974년,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루이스 칸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심장발작으로 급서(急逝)한다. 그로 인해 킴벨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한 칸의 언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칸 밑에서 수석건축가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마샬 메이어스(Marshall Meyers)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한 후 예일대학에서 건축학위를 받는 메이어스는 1957년 10월 루이스 칸을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간다. 예일대학 건축학부가 발행하는 건축저널지 'Perspecta 4'의 편집자로 일하던 중 칸에게 의뢰한 원고가 늦어지자 원고를 직접 받기 위해 칸의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이 때 칸은 성실성이 돋보인 메이어스를 설계실 직원으로 영입한다. 메이어스는 마무리 단계에 있던 펜실베이니아대학 리차드 의학연구소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이후 1965년까지 7년간 칸 밑에서 건축의 본질을 배운다. 1966년 칸의 사무실을 그만둔 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드의 미국대사관 설계책임자로 활동하지만, 1967년 8월 칸의 부름을 받고 필라델피아 사무실로 돌아와 칸의 후기 역작이라 할 수 있는 킴벨미술관과 예일 영국미술센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칸이 사망할 때까지 명작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메이어스는 킴벨미술관이 훌륭한 건축으로 탄생될 수 있었던 배후에 건축가와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관계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브라운과 칸의 미묘하면서도 긴장된 관계가 역작 탄생의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루이스 칸이 캄밸미술관 설계자로 지명된 후 8개월이 지난 1966년 10월 5일, 필라델피아의 루이스 칸 사무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계약서에는 6개월 내에 기본계획을 제출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획안에 대해 사전 조율한다는 부수적인 조항이 담겨있었다. 메이어스에 따르면 시작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 1967년 봄까지 칸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보고받지 못한 브라운은 마음이 상했다. 칸을 그냥 내버려두면 보잘 것 없는 것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우려였다. 브라운은 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럼에도 칸의 대답은 늘 묵묵무답이었다.

3) 킴벨미술관의 발전단계는 관장의 임기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 1966-1979), 에드문드 필스버리(Edmund Pillsbury, 1980-1998), 티모티 포츠(Timothy Potts, 1998-2007) 세 사람이 킴벨 사후 40여 년간 미술관을 이끌어 왔다. 컬렉션의 질적 향상이 이룩된 시기는 에드먼드 필스버리가 관장직을 맡던 1980년대로 알려져 있다.

칸은 이 무렵 미술관 건축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숙고의 단계에 있었다. 미술관에 어떠한 질서를 부여할 것인지, 평면에 적용할 모듈과 기하학적 시스템에 골몰했다. 어느 순간 브라운이 칸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브라운은 마치 칸의 학생이 된 듯이 칸이 제시한 평면의 미묘한 뉘앙스를 깨닫기 시작했고, 서로의 의견을 대부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Friendly Home’ 그리고 빛의 미술관

뉴욕5번가 뮤지엄마일[4]에 위치한 프릭컬렉션(Frick Collection)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오랜 기간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잔뼈가 굵은 50대 초반의 리처드 브라운은 칸보다 15년 연하였다. 10년 넘게 미술관 운영에 관여하다보니 미술관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논리가 구축되었고, 미술품이 어떠한 환경 속에 전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었다. 자신감이 생긴 탓일까. 기본계획 단계에서 브라운의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그가 주장하는 키워드는 'Friendly Home'. 미술관 건축은 집처럼 친근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브라운은 프릭 미술관에서의 근무경험을 떠올렸다.

그림 7) 루이스 칸과 미술관의 빛에 대해 논의하는 킴벨미술관관장 리처드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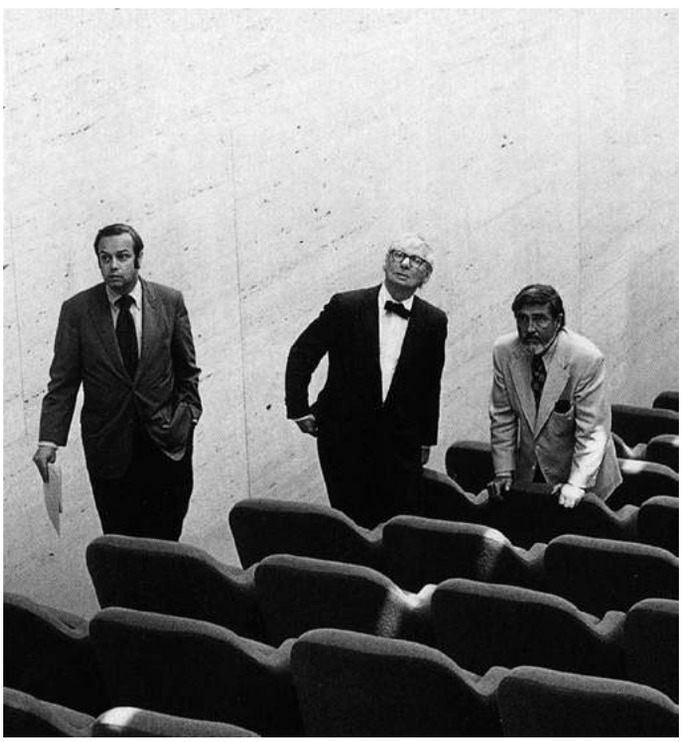


그림 8) 킴벨미술관 신축 공사의 스탭 (좌로부터 마샬 메이어스, 루이스 칸, 리처드 브라운)

40년 동안 미술품을 수집해 온 철강업계 대부호 헨리 프릭은 죽기 직전, 자신의 살던 뉴욕 5번가의 맨션과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 용도로 사

4) 미술관들이 밀집한 뉴욕 5번가 82번 스트리트부터 105번 스트리트까지를 뮤지엄 마일이라고 부른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시작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 미술관, 프릭미술관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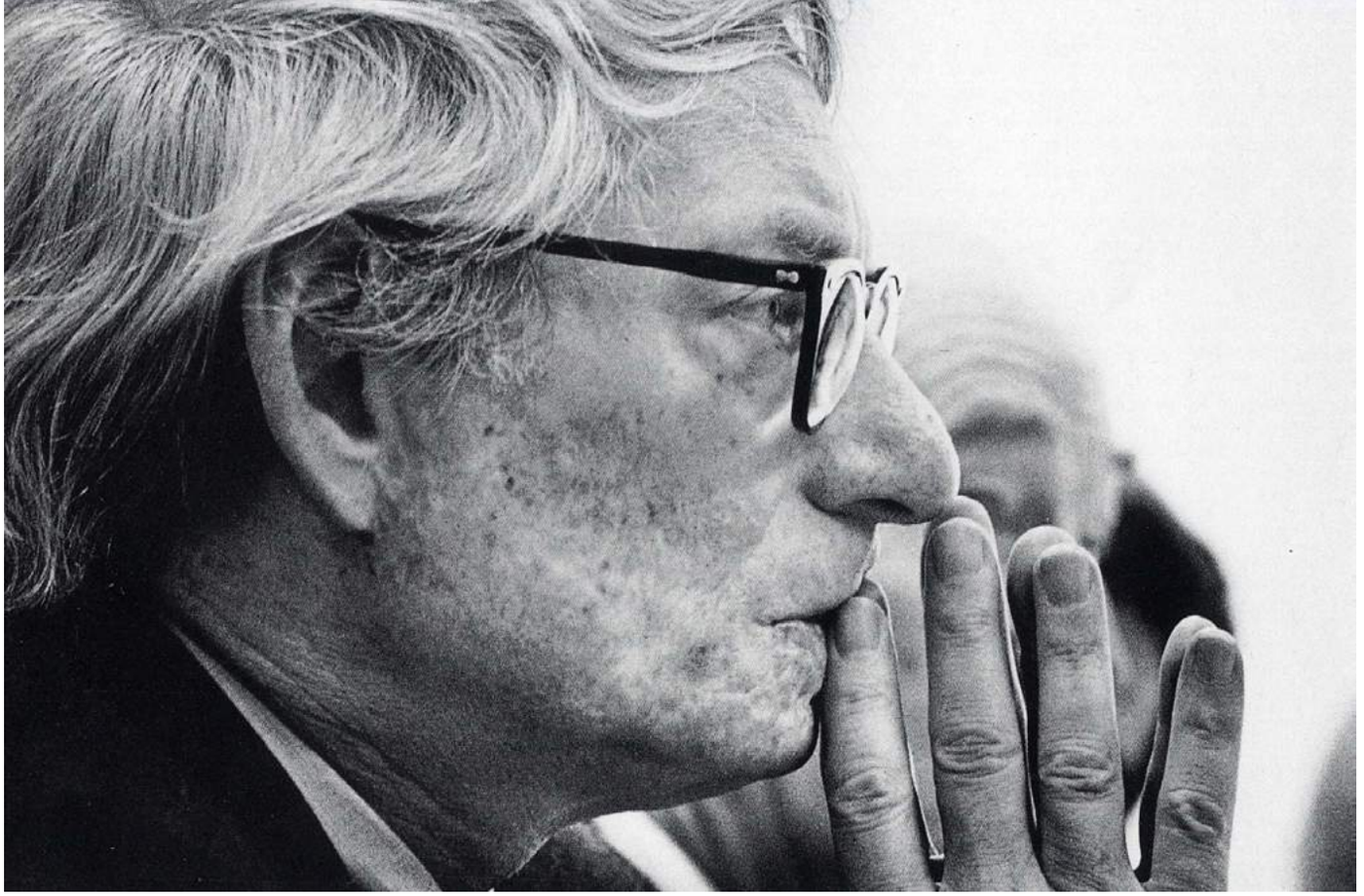


그림 9) 킴벨미술관 설계에 대해 토론중인 루이스 칸

용해달라는 조건이었다. 토마스 헤스팅스(Thomas Hastings)가 1914년 맨해튼 5번가에 설계한 고급 주택에 살면서 소장품을 거실과 침실, 식당, 계단실 등 집 내부 곳곳에 전시해 왔던 헨리 프릭은 사후에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싶었다. 프릭의 유언에 따라 베르메르와 프라고나르, 부쉐같은 르네상스에서 로코코에 이르는 주옥과 같은 작품들이 오늘 날에도 주택을 개조한 프릭미술관 내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브라운은 이곳에서 5년간 근무하며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 매혹된다. 루브르 미술관이나 빈미술사 박물관처럼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했다. 관람객의 경우 한두 시간 미술품과 마주하다 보면 육체적 피로에 커피숍을 찾기 마련이나, 이곳에서는 대규모 미술관에 겪는 관람객들의 피로현상도 없었다. 프릭미술관처럼 휴먼스케일의 미술관을 만들고 싶었던 브라운은 칸에게 미술관의 조건을 이렇게 내세운다.

"궁정처럼 건축 자체가 위용을 뽐내기보다는 별장처럼 평안하고, 기품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화가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처럼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회화를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관은 비위협적이야 하며 친근해야 하지요"

칸 역시 'Friendly Home' 친근한 미술관 개념에 흔쾌히 동의했다. 빛에 대한 두 사람의 개념 또한 일치했다.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브라운은 칸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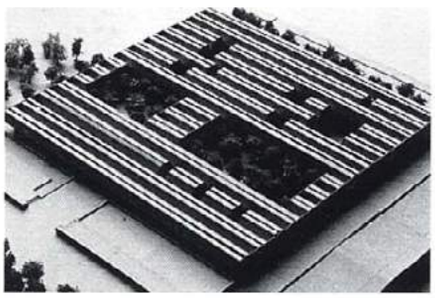
"자연광이 완벽하게 제거된 전시공간은 진공 처리된 캔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들이 시시각각 자연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과 태양. 계절의 변화를 건물 속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칸 역시 머릿속에 하늘로부터의 유입되는 빛을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인공조명은 보조조명으로 사용하고 주조명을 자연광으로 하는 것에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 했다. 빛은 미술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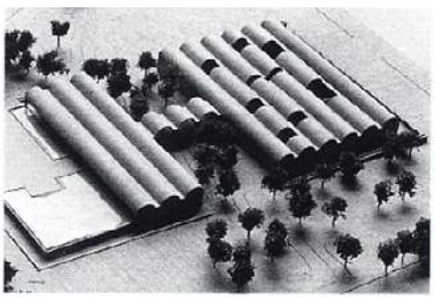
1964년 11월, 시의회가 제공한 공원부지로 미술관 신축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주변에는 필립 존슨이 설계한 아몬 카터 미술관과 과학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었다. 킴벨미술관이 들어설 경우 뒤편에 위치한 아몬카터 미술관의 전망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킴벨미술관 측은 아몬 카터 미술관의 전망을 차단하지 않도록 40피트(12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계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아몬 카터 미술관의 플랫폼에서 포트워스 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높이의 제한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술관은 수평적인 매스로 구성되어야 했다. 지붕형태는 배럴 볼트(Barrel Vault)로 결정됐고, 볼트의 높이는 30피트(9미터)로 디자인된다.

기본계획을 담은 모형과 도면이 킴벨재단과 시의회에 제출된 후 칸은 브라운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미술관의 기능적인 측면과 형태개념은 매우 훌륭하다는 찬사였다. 그러나 미술관의 평면 크기와 스케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규모가 너무 커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다고 했다. 킴벨미술관에 전시될 작품들은 대형작품이 아닌 이젤 크기의 중규모 작품들이기에, 미술작품이 자칫 건물규모에 압도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술관의 높이가 관람객의 키에 조응하길 원했다. 볼트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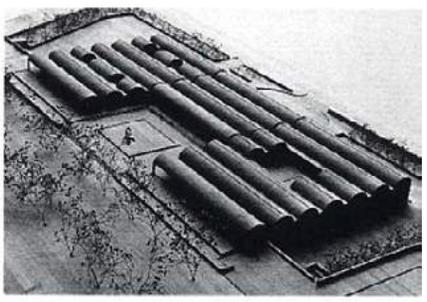
1967년 7월, 루이스 칸은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을 설계하기 위해 다카로 향하면서, 메이어스를 불러 해결방안을 지시했다. 적어도 9월말까지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만 했다. 메이어



2. 1차계획안(Square-type)



3. 2차계획안 (H-type)



4. 3차계획안 (C-type)

그림 10) 킴벨미술관 평면의 발전과정

스는 공간의 스케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고민에 빠진다.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주말이 다가왔다. 일요일 집에서 골몰하고 있던 메이어스는 서가에서 독일 건축가 프레드 앙게레(Fred Angere)가 저술한 'Surface Structure in Building(1961)'이라는 책을 빼들었다(초판은 독일어로 발간되나 1961년 영어판으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메이어스는 그 책의 431페이지를 펴고는 네 가지 형태의 배럴 볼트(Barrel Vault)형 지붕을 유심히 살폈다. Semi-circle, Ellipse, Cycloid, Sector of a circle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사이클로이드 타입에 시선이 머물렀다. 자주 보아왔던 형태는 아니지만 브라운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형태였다. 메이어스가 칸에게 보여주자 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지체없이 사이클로이드형 지붕 단면이 도면으로 제작되었다.

평면 역시 새롭게 제안되어야만 했다. 누가 봐도 1차계획안은 규모가 너무 컸다. 브라운이 요구한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지에 너무 꽉 들어찬 나머지 주변에 오픈스페이스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통로를 두는 H형 평면을 만들어 냈다. 파빌리온과 파빌리온 사이에 연결 코리더를 만들고 사이 공간에 조각공원을 두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지만, 칸은 고개를 저었다. 미술관 기능이 두 개로 나눠질 경우 한쪽 관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조형적으로 매스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것 자체가 싫기도 했다. 계획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두 개의 매스는 다시 하나의 장방형 매스로 합쳐졌고 안뜰을 중심으로 하는 C자 형태의 평면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안의 모형과 도면이 포트워스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반복되는 볼트로 구성된 건물은 그들의 눈에 콘크리트로 된 창고처럼, 가축을 기르는 축사처럼 거칠게 보였다. 미술관 건축이 지녀야할 기념성이나 웅장함도 없었다. 미술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뚝뚝한 형태였다. 시민 한 사람은 킴벨의 미망인 벨마를 찾아가 "미술관은 추악한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험담을 늘어놓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성난 마음을 누그러트린다. 건물이 갖고 있는 예상치 못한 '위용'에 놀란 나머지 벨마에게 전화해 험담을 늘어놓은 것을 사과하기에 이른다. 그들이 찬사를 늘어놓은 것은 놀랄만한 단순성과 차분함, 그리고 볼트 공간 아래 침윤하는 은색 빛이었다. 현란한 수사학이나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고귀함을 내뿜고 있었다.

칸은 콘크리트의 질감과 색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녹색기운을 띤 어둡고 짙은 색조의 콘크리트 색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포졸란이라는 혼화재를 콘크리트 속에 넣어 타설하곤 했다. 포졸란을 넣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강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색깔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트워스 인근 텍사스 지역에서는 포졸란이 생산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 운반하기에는 운임비가 재료비보다 더 들어갈 정도로 비쌌다.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미려한 색깔을 내는 방안을 모색한다.

킴벨미술관의 내부공간은 밝은 콘크리트 색조를 주조색으로 삼아 무채색으로 조율된다. 벽면에 마감된 석재도 우윳빛 트래버틴이고 목재도 화이트 오크다. 칸의 건축에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던 적벽돌의 붉은 기운은 보이질 않는다. 리처드의학연구소로부터 필립엑스터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조적조 모티프는 칸의 건축을 특징짓는 재료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킴벨미술관에 와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무채색 콘크리트였다. 상부에서 유입되는 빛은 콘크리트와 만나 오묘한 효과를 창출했다. 구조와 재료와 빛은 하나가 되어 '룸'을 만들어냈다. 칸 건축의 요체는 '룸'과 '구조' 빛에 있었다.

빛의 구현체 볼트구조

칸은 구조는 곧 빛이라고 말한다. 구조가 빛을 빚어내는 주체라는 것이다. 자연광 없는 '방'(room)은 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빛 철학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프로젝트가 킴벨미술관이다.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칸의 사고는 상식을 초월한다. 아치의 정점은 압축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키스톤이라는 돌을 위치시키곤 한다. 그런데 칸은 이 부분을 뚫어 빛을 받아들이려는 역설적인 생각에 골몰한다. (볼트 구조의 종단면은 아치이고 아치의 연속체가 볼트 지붕이다) 칸은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곡면 정상부분에 3피트(90cm) 폭의 홈을 일직선으로 뚫었다. 볼트 지붕이 반쪽으로 분리되다 보니 구

그림 11) 볼트 천장 시공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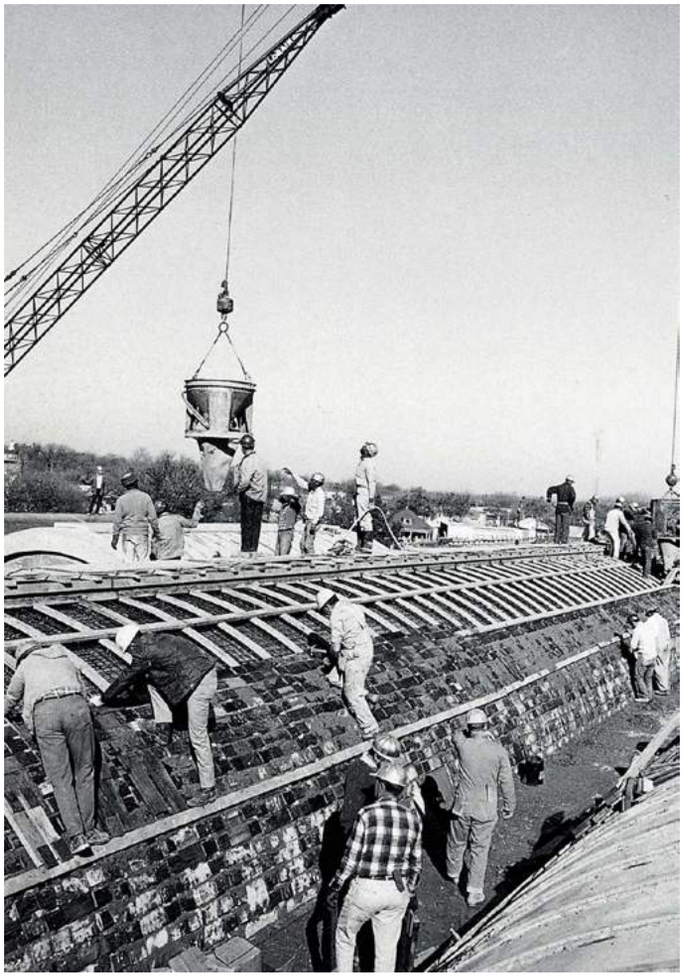


그림 12) 킴벨미술관 지붕 공사장면

조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구조는 리처드의학연구소 건립 때부터 줄곧 칸과 호흡을 맞춰온 콘크리트 구조 전문가 아우구스트 코멘단트(August Komendant) 박사의 몫이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학부 교수 코멘단트는 칸의 오랜 친구이자 구조 파트너였다.

킴벨미술관의 지붕은 총 열여섯 개의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유닛은 네 개의 기둥 위에 길이 30미터, 너비 7미터의 볼트가 얹히는 형식으로, 볼트 정상부는 90센티 폭으로 틈이 나 있다. 압축과 비틀림이 최대인 지점이 뚫려 있다 보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돼야 한다. 코멘단트 박사는 배럴볼트 장축 방향을 따라 인장 철근을 배근한 현장타설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구조를 적용해 이 문제점을 해결했다. 곡면에서 일어나는 휨모멘트를 지지하는데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구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아치형상의 단변방향이 아닌 장축방향으로 철근이 배근됨에 따라 지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마무리 되자 정상부에서 유입된 빛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칸은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사이클로이드 볼트 중앙에 나있는 세로홈 아래 어떤 장치를 설치하여 빛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초기에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판으로 된 반사판을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낮 시간에 유입된 태양빛이 투명한 반사판을 통해 전시벽면으로 직접 투사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미술품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온 브라운 입장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칸의 또 다른 협조자 켈리(Kelly)가 긴 탐구 끝에 해결안

을 찾아내었다. 전제 면적의 50퍼센트를 천공한 알루미늄 펀칭메탈을 햇빛의 입사각을 고려하여 곡선을 따라 휘어서 설치함으로서 빛의 분포를 원래 희망하던 대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971년 1월 반사판 디자인이 확정되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자 반사판을 실제 모형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이클로이드 밑에 설치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반사판은 완전히 새로운 어휘였다. 은빛으로 품어져 콘크리트 표면에 부딪힌 빛은 환상 그 자체였다. 칸과 브라운, 벨마 킴벨, 켈리 모두 환호를 내질렀다. 칸은 포트워스에서 건축역사상 동등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채광창 시스템을 창조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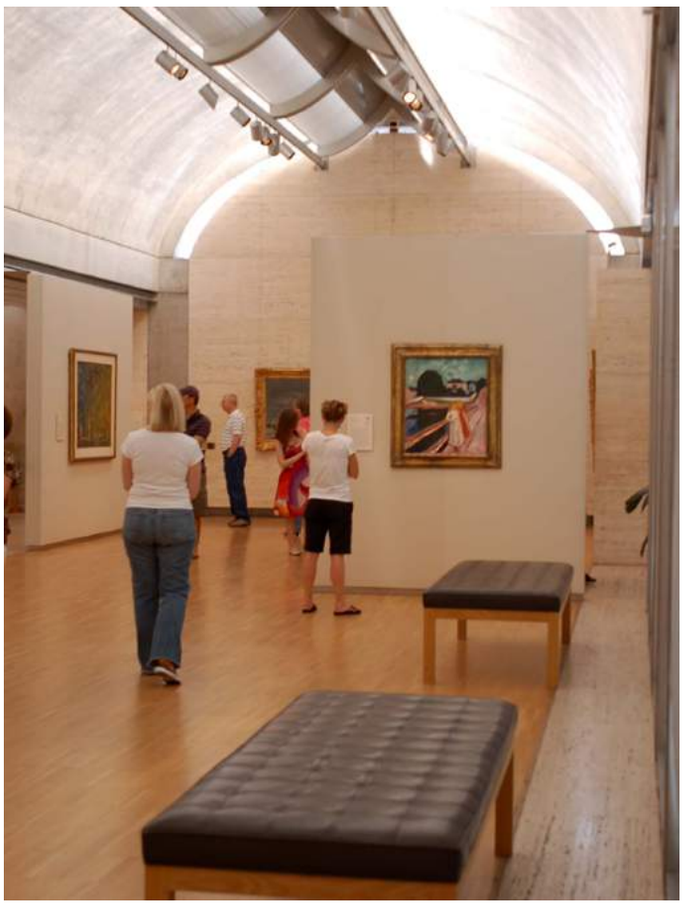


그림 13) 뭉크의 작품이 전시된 킴벨미술관 전시실

볼트 구조의 근원을 찾아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심사 때의 일이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고, 세미나에 앞서 심사위원들과 취재진들 사이에 간담회가 있었다. 한 기자가 심사위원 세 명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술관 하나를 언급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탈리아 베니스대학교 건축사학과 교수 마르코 포카츠닉은 세지마 카즈오가 디자인한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조병수는 오스트리아의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츠'를, 뉴욕현대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배리 벅돌은 '킴벨미술관'을 꼽았다. 베리 벽돌의 답변은 이러했다.

"애석하게도 내가 일하는 뉴욕현대미술관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킴벨미술관이지요. 루이스 칸이 건축했지요. 단순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로 매우 기능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모던함과 고대적인 분위기가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외부 자연과 조화되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처에 갈 때마다 두 시간만 봐야지 해놓고는 하루 종일 머무르게 되지요. 현대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린 고요함과 차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벅돌의 표현 속에 방점이 실린 부분은 '고대적인 분위기'와 '수십 년간 잃어버린 고요함과 차분함'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칸의 건축이 지닌 질서에서 산출된다. 질서를 의미하는 '오더'(Order)는 '사물이 어떻게 되고 싶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방법론적인 도구, 즉 건축의 존재감을 부여하는 공간의 문법과 같은 것이다. 칸은 질서구현의 도구를 볼트 지붕에서 찾는다. 볼트 지붕에 대한 그의 생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잠재태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축적되어 왔다. 1959년 네덜란드 오셀로에서 열린 CIAM 11차 회의에서 루이스 칸은 최종 연설하는 기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볼트 얘기를 꺼낸다.

"건축은 깊은 통찰을 통해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벽이 분리되어 기둥으로 변했던 때에 건축에서 일어났건 큰 사건을 생각해 보자. 감격적이며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아치(Arch)도 볼트(Vault)도 돔(Dome)도 기둥과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각각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4) 킴벨미술관의 볼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틈새를 볼 수 있다.

칸은 킴벨미술관 설계 초기부터 볼트를 질서를 구현하는 모티프로 확정한 후, 최종 3차 계획안까지 일관되게 적용시킨다. 킴벨미술관을 설계하기 전 루이스 칸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마음은 위대한 로마 건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볼트는 나의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나는 햇빛이 강하게 부딪히는 볼트의 정점에서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볼트와 아치 구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1950년 로마여행에서 찾고 있다. 칸이 로마의 미국아카데미에 소속된 재외건축가로서 1950년 11월부터 3개월간 로마를 여행했던 경험이 칸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는 것이다. 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일주일 만에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편지가 그 것을 증빙한다.

"나는 이탈리아 건축이 앞으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탈리아 건축을 우리 건물에 대한 지식이나 필요성을 갖도록 해석하는 것일세"

이 편지와 CIAM 강연을 일련 상에 놓고 보면 볼트구조에 대한 염원은 칸의 잠재의식 속에 오랜 기간 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칸과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 온 브라운 관장 역시 볼트는 칸이 오래전에 간직해왔던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그런데 몇몇 비평가들은 볼트구조의 근원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르 코르뷔지에와의 연계성이다.

버지니아 대학의 피터 시스트롬(Peter Sistrom) 교수는 '은색의 빛, 측정불가해한 공간과 친근한 집'(Silver Light, Immeasurable Space and a Friendly Home)이라는 제목의 킴벨 미술관 분석 글에서 킴벨미술관의 볼트 지붕과 르 코르뷔지에가 1956년에 설계한 사라브하이 주택(Sarabhai House)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인도 아메다바드에 세워진 사라브하이 주택이 킴벨미술관의 볼트 지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루이스 칸은 인도 아메다바드 경영대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도에 갔을 때 종종 사라브하이 주택에 초대되었고, 완만한 궁륭형 천정 내부를 관찰하곤 했다. 죽기 몇 달 전 루이스 칸은 단위집중요소를 군집시키는 르 코르뷔지에의 방법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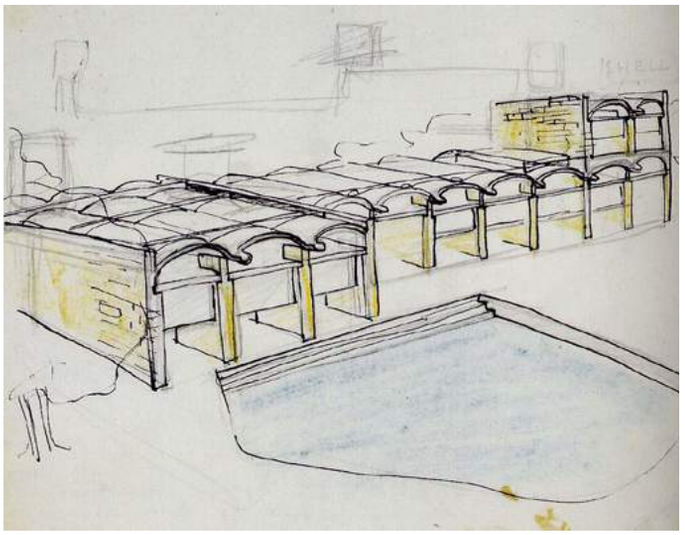


그림 15) 르 코르뷔지에의 사라브하이 주택 스케치

5) 르 꼬르뷔지에의 볼트형 비중에 대한 의지는 사라브하이 주택뿐만 아니라 모놀주택과 로크 에 로브(Roq et Rob)계획에서도 나타는데, 이 같은 경향에 대해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에 대한 건축론을 쓴 스타니스 라우스 폰 모스(Stanislaus von Moss)는 자신의 저서에서 볼트형 지붕으로 이루어진 벌집형 구조는 르 꼬르뷔지에가 그리스 여행시 고대 농가주택에서 받은 착상에서 나왔다라고 말한다.

그림 16) 킴벨미술관 서쪽 포티코의 야쁜 홀리 나무

시간을 초월한 건축

칸의 생이 마감되기 18개월 전인 1972년 10월, 포트워스에서는 킴벨미술관 개관식이 성대히 열렸다.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언론인, 수많은 미술 전문가와 예술 관련단체, 그리고 포트워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5일 동안 성대히 열렸다. 한 때 칸의 계획안에 회의감을 품었던 시민들은 은빛이 새어나오는 미술관 내부에 들어서면서 탄성을 내질렀다. 짤막한 키에 화상을 입은 일그러진 얼굴,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위대한 그의 업적에 세속적인 미의 기준은 잣대가 되질 못했다. 칸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행사기간 중 이틀정도만 머물렀다. 그는 사업가이자 패트론인 폴 멜론(Paul Mellon)이 제공한 전용비행기를 타고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필라델피아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 폴 멜론이 후원하는 예일 영국미술센터 설계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관식에 동참했던 예일 영국미술센터 관장 줄 프라운(Jules Prown)은 리처드 브라운에게 물었다. 칸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어떠했냐고. 브라운은 이렇게 대답한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요"
(It was a lot of trouble but it was worth it)

'난관(trouble)'과 '가치(worthy)' 그것은 클라이언트와 건축가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징하는 단어일 것이다. 칸은 프로젝트를 대할 때마다 건축의 본질, 가치를 찾는데 주력했다. 칸이 설계한 작품은 제시된 규모를 넘는 것이 많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것도 많았다. 충족될 때까지 도면을 다시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는 중간되고, 클라이언트를 잃게 되기도 했다.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 못해 계획하는데 여러 해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확실히 경제적이지 못했고 그의 사무실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다. 루이스 칸은 킴벨미술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1차 기본계획 제출일자만을 맞추고 나머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완공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건축적 숙고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킴벨미술관을 지휘했던 루이스 칸과 그의 보좌역인 메이어스, 그리고 클라이언트인 브라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술품의 공적 차원을 알고 개인소장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킴벨의 가족들이다. 특히 킴벨의 미망인 벨마는 1982년 사망할 때까지 킴벨미술재단의 의장으로서 킴벨미술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막후에서 심혈을 다했다. 소유주가 직접 관여해 쥐락펴락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십상이나 그녀는 묵묵히 건축가를 믿고 킴벨미술관이 완성을 지켜보았다.

친구들이 킴벨 미술관 설계안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을 때도 묵묵무답 건축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녀는 1972년 포트워스 상업위원회로부터 문화공헌상을 받았고, 1973년에는 포트워스 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미술후원상과 포트워스 교류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시민으로 꼽혔다. 1998년은 킴벨미술관이 건립된 지 25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그해 킴벨미술관은 건축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 부여하는 국제건축가연맹 25년상(AIA Twenty Five Years Award)상을 수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킴벨미술관은 구석구석 그 건축적 풍부함과 사려 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순 명료하고 필연적이며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 그것은 시간이 자나도 변치 않는 완벽성을 의미한다. 건축계에는 오래된 정의와 규범이 존재해 왔다.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십서'에서 강조한 건축의 세 가지 요소. 즉 쓰임새와 튼튼함과 아름다움이다. 킴벨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비트루비우스의 세 가지 교훈이 이곳에 모여 있음

그림 17) 개관 2개월 전 1972년 8월 3일 촬영한 루이스 칸의 현장방문 모습, 식재된 야쁜 홀리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을 새삼 체험하게 된다. 건립된 지 40년이 다가옴에도 칸의 세심한 건축적 탐구는 그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야쁜 홀리 트리의 추억

"킴벨에서 제일 맘에 들었던 것이 입구의 숲이었고 그 나무였는데 수종도 모르고 구할 수도 없어 써먹질 못했지요" 최근 바우지움 미술관을 설계한 아르키움 김인철 소장님의 킴벨미술관 방문 소회다. 대부분 킴벨미술관을 다녀오면 실내공간의 빛을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기에 출입구에 식재된 나무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표현은 의외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나무 이름은 '야쁜 홀리'(Yaupon holly) 나무였다. (Yaupon은 북미인디언 부족중 하나인 Siouan족 말로 ya(tree)+pa(leaf)란 뜻을 지닌다) 밝은 회색빛 목줄기를 봐서는 고택 후원에 자주 심는 배롱나무(목백일홍)와 비슷했다. 플로리다에서 텍사스로 이어지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 식생하는 상록수로 최대 9미터까지 자란다. 수령이 예쁘다보니 크리스마스트리로, 조경수로 찬사를 받는다. 생장속도가 느려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높이를 넘지 않는다. 칸은 킴벨미술관 개관식이 있기 두 달 전인 1972년 8월 3일, 마무리 단계인 공사현장을 찾아 야쁜 홀리 나무가 식재된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다. 개관식을 앞둔 그에게는 화룡점정의 순간이었다.

군집 식재된 야쁜 홀리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서측(후면) 출입을 이용하는 게 좋다. 킴벨 미술관 부지는 동서로 한 개층 높이의 레벨 차를 갖고 있어 진입로에 면한 동측 출입구로 들어설 경우는 전시장까지는 계단을 타고 한 개 층을 올라가야 한다. 비록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공원에 면해 있는 서측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진입단계에서의 풍치를 맛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칸은 서쪽 포티코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입구 마당(코트)에는 야쁜 홀리(Yaupon Holly) 나무가 그리드 패턴에 따라 열 지어 심겨져 있어 미술관의 격조를 높인다. 야쁜 홀리 나무를 비롯한 킴벨미술관 주변의 조경계획은 루이스 칸의 세 번째 부인 헤리트 페티손(Harriet Pattison)이 맡아 진행되었다. 영화 'My Architect'를 제작한 나탈리에 칸의 어머니로 그녀는 조경건축가였다. 킴벨미술관 주변은 칸과 헤리트 페티손에 의해 야쁜 홀리와 느릅나무로 변주된다.

칸은 킴벨미술관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 애착은 완벽함을 향한, 본질을 찾아내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마지막까지 숙고의 단계를 거치는 절차탁마의 과정이었다. 칸의 미망인 에스터 칸이 1990년 11월 29일자 뉴욕타임즈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편 루이스는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적이 거의 없었지만 킴벨미술관 만큼은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더하고 뺄 것 없이 그 자체로서 완벽한 어떤 것을 설계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칸, 킴벨미술관 신관

벨마 킴벨이 타계한 후 7년이 지난 1989년 킴벨 재단은 미술관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로말도 지우골라(Romaldo Giurgola)에 의뢰하여 킴벨미술관 증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이 나오자마자 의식 있는 건축사와 비평가들의 항의가 빗

발쳤다. 지오골라의 계획안은 남북 측으로 볼트를 덧대는 형식이었으나 필립 존슨을 비롯한 많은 건축계의 지식인들은 증축계획안이 킴벨미술관이 지닌 건축적 순수성을 명백히 손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모나리자 얼굴에 눈썹을 그려 넣은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2006년 킴벨미술관장 티모티 포츠(Timothy Potts)는 신관 건립 추진을 위한 만찬 모임을 개최했다. 참석자 명단에는 루이스 칸의 딸 슈 앤 칸(Sue Ann Kahn)의 이름도 있었다. 칸의 후손이 참석한 것은 칸건축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이 만찬 모임에서 신관을 건설하기로 의견이 수렴되고 부지는 칸 빌딩 뒤편 공원부지로 결정된다. 킴벨미술재단은 이듬 해 렌조 피아노를 신관 설계자로 지명한다. 렌조 피아노는 젊은 시절 루이스 칸의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다, 칸처럼 빛을 소중하게 다뤄왔다. 그가 설계한 휴스턴 메닐컬렉션과 바젤의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은 모두 칸처럼 하늘로부터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있다. 칸의 건축과 호흡하기에 최상의 선택이었다. 렌조 피아노는 구관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주변에 야쁜 홀리 나무를 심었다.

뉴욕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베리 벽돌은 두 시간 머물다 종일 머무는 게 킴벨미술관의 매력이라 했다. 나이로는 칸이 열 살이나 많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빈센트 스컬리 교수는 베토벤 5번 교향곡을 자주 듣듯이 킴벨미술관 역시 다시 들리게 되는 끌림이 있다 했다. 4년 전 댈러스 공항에 도착, 예약해 둔 렌터카를 이용해 킴벨미술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여느 미술관을 찾았을 때의 것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비슷한 경험을 굳이 찾자면 오래 전 로마의 성 코스탄자(Santa Costanza) 성당을 방문했을 때의 경외감과 유사한 것으로, 원형의 천장에서 빛이 유입되는 코스탄자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기에 앞서 육질적인 로마네스크 벽체 앞에서 건축의 존재감에 휩싸였던 몸짓과 견줄 만 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술의 전범을 대할 때 느끼는 경외감, 또는 예술작품의 현존성, 즉 아우라를 접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 호에는 신관을 설계한 렌조 피아노의 미술관 건축에 대한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하늘로 부터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또 다른 칸의 모습을 기대해 보자.

그림 18) 킴벨미술관 신관. 루이스 칸처럼 하늘로 부터의 빛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독일 본 (Bonn),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글. 조인숙 | CHO In-Souk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국제건축사연맹(UIA) '문화정체성 및 건축유산' 분야 국제디렉터
이코모스 - 역사건축구조수리 학술위원회 (ICOMOS-ISCARSAH) 부회장

제39차 본 (Bonn) 회의 개요

2015년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독일 본 (통일 전 서독의 수도)의 월드 콩그레스 센터 (WCC Bonn)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렸다. 주요 안건은 위험에 처한 유산들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사항,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유산들의 신규등재여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 전략 등이다. 주요 지표를 한 번 살펴보면 약 160개국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약 191개국이다)에서 2,200명 정도가 참석했고 155 종류의 언론도 참석했다. 올해의 성과는 신규등재가 24건인데 그 중 하나는 자연유산이고 나머지 23곳은 문화유산이다. 이 24건 중 한 곳은 한국의 백제역사지구다. 그 밖에 세(3) 곳이 새로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1) 곳, 즉 콜롬비아의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 (Los Katios National Park in Colombia) 은 각고의 노력 끝에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서 벗어나서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성공사례로 기재되었다. 행사기간 중 60여 종류의 부대행사가 있었고 개최지인 본에서는 "World Heritage Review" 특별판을 출간했다.
괄목할만한 내용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여사의 제청으로 무장세력에 의한 세계유산 훼손을 막자는 "Unite4Heritage"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위원회 시작 시 독일국무장관이자 대회 의장인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 교수의 주재 하에 세계유산에 관한 본 선언 (Bon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이 채택되었다. 대회 전 사전 행사로는 6월 18일-29일까지 31개국에서 선발된 젊은 전문가 (Young Experts)들의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운영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고;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 유산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13분들에 대한 "세계 유산의 영웅들 (Heritage Heroes)" 포스터 전시가 대회장 로비에서 있었다. 실무관련 해서는 공식회의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지침을 수정하는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회장단은 의장국 독일과 각 지역별 부의장국 크로아티아, 인도, 자메이카, 카타르, 세네갈이었으며 서기(Rapporteur)로 레바논의Hicham Cheaib가 수고를 했다.
2016년도 제 40차 세계유산 위원회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선출된 회장단은 의장국 터키와 각 지역별 부의장국으로는 레바논, 페루, 필리핀, 폴란드, 세네갈이고 서기(Rapporteur)로 한국인 Eugene Jo씨가 선출되었다.

참고할만한 점

개회식부터 폐회까지의 행사를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필자는 한국의 대표단 중 하나가 아니고 비정부기구인 국제건축사연맹을 대표하여 참석하다 보니 정부간의 외교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 회의를 볼 수 있었다.

2015년 위원회 및 총회의 진행관련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탱가능성이 더 맞는 듯)이라는 기치하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엄청난 노력이다. 그 사례로는 인쇄물 없이 USB에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점;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 점; 그리고 음식준비에는 되도록 현지 조달이나 계절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유기농 재료 사용을 권장한 점; 참가자 모두에게 500ml용량의 스테인리스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계속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회의를 선도하고 냉방도 섭씨27도 정도로 맞춰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독일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전 과정을 지켜 보면서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등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힘"과 "정의"라는 것을 보았다. 무장세력에 의한 파괴는 용서가 안되지만 자연재해는 규칙적용을 넘어선다는 것과 이웃이 맏형 노릇을 해 주는 의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50%이상이 지진으로 파괴된 카트만두 밸리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권고를 받았지만 그들의 복구하려는 자구노력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되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인 인도 및 파키스탄 등의 지지 발언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등재보류권고나 등재권고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보다 한 단계 높이 결정되는 데에도 역시 이웃의 외교적인 지지발언이 큰 몫을 했고 품앗이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추어주어서 어깨동무하고 등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등재건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센터에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연히 들었다. 별 감흥도 없고 별 임팩트도 없는, 그냥 그런 유산들….모범 답안 써서 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의 유산들

이라는 후문도 있다. 세계유산이라는 진정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정말 박수 받는 등재 결정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평가단들도 이해관계 저촉(Conflict of Interest) 에서 자유스러워야 하며 폐쇄적인 활동보다는 공개적 활동으로 그들의 전문성이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유산 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 위원회는 정부간 위원회로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된 대사가 주무 책임을 맡고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여 외교적인 발언을 하는 회의다. 이 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이란 1959년 이집트 고대 누비아 유적 보호를 계기로 탄생되어 유네스코가 제정한 협약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국제협약이다. 공식명칭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다. 1972년 파리에서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된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이다.

이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로 구성된 **총회**,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자문하는 3개 자문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자연유산 분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문화유산 분야); **국제문화재 보존 복원센터** (ICCROM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문화재 보존과 복원 분야)로 운영되며, 실무지침으로는 세계유산협약이 정한 기준내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기준, 심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이 있다. 한국은 1988년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5년 현재 21개 위원국 중 하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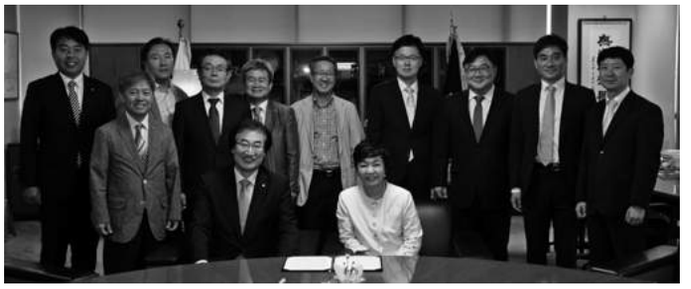
2017 UIA Seoul 을 앞두고

지난 2011년 국제건축사연맹 (UIA) 도쿄 대회시 6년 후인 2017년 UIA개최지로 서울시가 강력한 후보로 나섰다. 당시 싱가포르와 멕시코와의 경쟁의 중점사항은 서울은 인구 일천만이 넘는 수도인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계유산이 세 곳이나 있다는 점이었다. 찬란한 과거를 지닌 멕시코와 화려한 미래를 바라보는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서울시의 이런 점이 부각되어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그렇다. 이미 망가졌다고 또는 계속 망가진다고 해도 서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저마다 제 몫을 하는 도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전문가들은 서울 한양도성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참석했던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등재된 서울의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및 조선왕릉 (2009년)에 이어 서울 한양도성 (Seoul City Wall)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추진 중인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잠정목록에 있는 서울 한양도성은 2016년 1월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2017년 6월에서7월 사이 개최될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부동산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이 OUV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10가지[1] 중 하나이상 충족되면 된다. 등재평가기준1~6은 문화유산, 7~10은 자연유산 기준이며 공통사항으로는 완전성 (integrity)과 보호 및 관리체계다. 그리고 모든 문화유산은 재질 및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는 진정성 (authenticity)이 필요하다. 최종 결정사항으로는 등재 (inscription); 보류 (Referral); 반려 (Deferral);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 한양도성의 추가작업은 서울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다만 서울 한양도성의 유산가치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누구나가 공감하여 아주 기분 좋게 평가된 후 등재 결정되어서 2017년 국제건축사연맹 회의 개최 즈음해서는 서울시 소재 세계유산을 하나 더 전 세계 건축사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유네스코와 유산 참조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

건축계 소식

협회 DB-솔리데오 기술력, 건축정보화기술개발에 획기적인 발전 기대
대한건축사협회, (주)솔리데오시스템즈와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가 전자정부 전문 IT기업인 (주)솔리데오시스템즈(대표 김숙희, 이하 '솔리데오')와 건축기술에 IT를 접목시킨 미래형 건축기술의 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20일(목)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에서 솔리데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세움터 및 건축 관련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기능개선,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협력을 통해 건축 산업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주)솔리데오시스템즈는 대한민국의 행정정보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 정보화분야의 ISP/BPR, 유비쿼터스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까지 토탈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인 국토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행안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구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등 국책 정보화 사업 및 U-시티 구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결한 업무협력의 주요 내용은 그간 솔리데오가 16년 이상 개발·유지관리 해온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3차원건축정보관리시스템(BIM)인 'ArchiBIM' 의 건축부문 확산적용 및 최근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스마트빌딩관리시스템 'ArchiFMS' 의 상호협력 강화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솔리데오는 양측의 상호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의 개선 제안뿐만 아니라 협회의 DB와 여론 수렴, 솔리데오의 기술력을 더해 건축 정보화기술개발의 획기적인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솔리데오의 김숙희 대표는 "IT 전문기업과 사용자 단체가 협력하여 자칫 침체에 빠질 우리나라 건축 정보화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하여 기대가 크다. 솔리데오의 앞선 정보화기술력을 건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제도개선 및 운영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열정과 창의력 돋보이는 8인의 신진건축사 선정

구 분		수상자	건축사사무소명	평가 작품명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상	홍영애	moldproject	노고산동 꽃학원
	우수상	오신욱	라움	INTER-WHITE
		조성욱	조성욱	에리두
대한건축사 협회장상	장려상	강영진	아키후드	틈틈집
		김수영	숨비	화인링크
		동원서	디에이	INTERTEX
		조성익	TRU	능동 하늘집
		최정우	유니트유에이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신진건축사들의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최고상인 대상 수상자로는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우수상은 오신욱, 조성욱 건축사가, 장려상은 강영진, 김수영, 동원서, 조성익, 최정우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은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5월초에 공고하여 6월에 참가신청을 받은 올해 공모에는 총 42명의 유능한 신진건축사들이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8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은 국내외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건축 분야에 폭넓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재호 건축사(제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주)를 위원장으로, 김호준 건축사(주.아도스 건축사사무소), 백민석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김현진 건축사(SPLK 건축사사무소), 오주희 LH 디자인센터 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심사는 △설계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건축주 · 시공자와의 소통능력 등을 주안점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수상자인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는 제한된 건축비와 설계비를 극복하고 신진의 열정, 창작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높이 평가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인 오신욱 건축사(라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주와의 충실한 대화와 요구에 대한 설계자의 훌륭한 해석이 돋보였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조성욱 건축사(조성욱 건축사사무소)는 신진다운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올해 출품작들은 설계비와 공사여건 등 열악한 조건에도 창의력을 통해 건축적 완성도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이 많았다. 리모델링, 주거대안 제시, 시공시스템 극복, 지역 공동체 참여 등 사회의 다양한 건축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내부공간 및 시공의 완성도, 주변과의 조화 면에

서 다소 부족하여 더욱 노력하고 고심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대상 및 우수상(총 3점)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장려상(5점)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며, 11월에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위원 위촉,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소개자료 제작,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의 실질적 혜택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별사면,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행정제재 해제 특별조치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 감면조치」 중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고했다. 당해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을 인정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행정처분이 해제된 사업자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이 표기되지 않는다.

<건축사 등 행정제재 해제조치 알림>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행정제재 해제 특별조치 내용

가. 대상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등

나.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부정당업자 제재
-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경고 처분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다.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관계법령의 등록기준에 미달, 금품수수행위, 부실시공행위,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라. 시행방법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표기되지 않으나,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통일, 대한민국 건축사가 함께 합시다 대한건축사협회, 통일나눔펀드 기금 모금 운동

대한건축사협회가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한다.

정부의 공식 기부금품 모집단체인 '통일과 나눔 재단'과 조선일보가 함께하는 통일나눔펀드는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 차원의 각계 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기금 마련 운동이다.

각계각층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된 기금은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동질성 회복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 △북한 어린이 지원 △북한 보건 향상 사업 △남북 지역결연사업 △이산가족 상봉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건축전문가 단체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나눔펀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기부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건축사, 건축가족 50만 명이 참여하는 실천이 통일과 기부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으로는 통일나눔펀드 기부약정서를 팩스(02-3415-6899)와 이메일(kira@kira.or.kr)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에 송부하면 일괄접수 후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02-3415-6813)으로 하면 된다.

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제1항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성용 회원에 대해 본협회 제8회 이사회('15.8.19)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 속 : 경상남도건축사회

나. 성 명 : 고성용 (1960.5.30生 / 회원번호 M1-06508)

다. 사무소명 : 인가 건축사사무소

라. 징계결정 : 회원 권리정지 9개월

- 중앙윤리위원회 : 2015.8.3
- 제8회 이사회 : 2015.8.19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기념 UCC 공모전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인 건축에 대한 즐겁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UCC를 제작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라는 대주제 아래 △건축을 매개로 한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간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 △학생 또는 기성 건축사의 건축 작업과정에 대한 소개 △마음에 남는 건축물에 대한 감상 등을 자유로운 내용으로 표현하여 제작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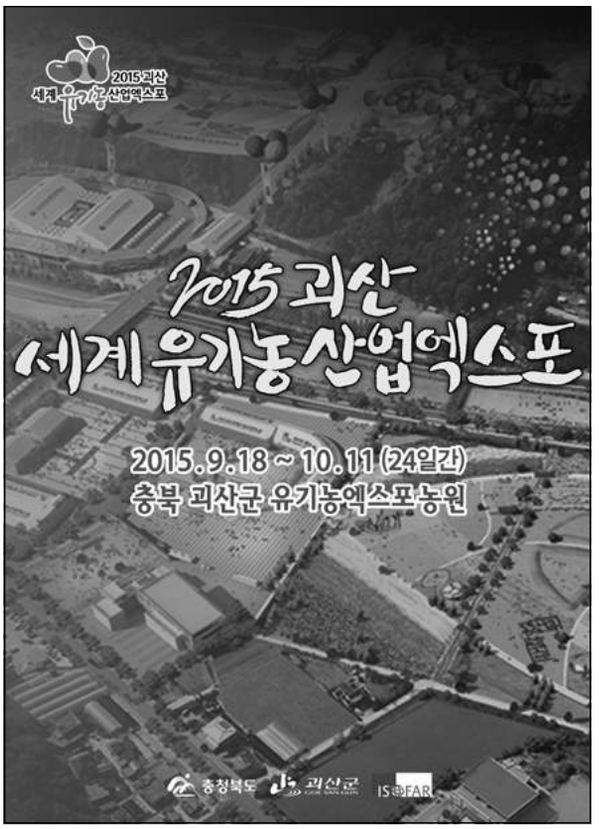
공모전 시상은 대상(상금 2백만 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을 포함하여 총 4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며, 참가 한 모든 사람에게 참가상으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관람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심사는 유튜브 조회 수(좋아요 횟수 포함)와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 23일에 열리는 대한건축사협회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삶과 밀접한 건축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UCC를 제작해 참여토록 하고, 이의 결과물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통해 응모, 확인할 수 있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안내



충청북도, 괴산군과 ISOFAR은 사람과 자연, 다양한 생명체의 공존을 추구하는 유기농에 대한 지식과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 '생태적 삶과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간은 9월 18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이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유기농엑스포농원에서 열린다. 주제전시관, 야외전시장, 유기농醫美관, 유기농산업관, 국제학술행사, 유기농 체험·문화공연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콘텐츠가 진행된다. 10대 주제전시관은 ▲주제안내(디지털인형 토크쇼) ▲토양(흙동굴, 토양 속 곤충) ▲물(작은 폭포, 유기작물 물 정화과정) ▲생물다양성(투구새우 전시, 반딧불이 관찰, 생물소리 청취) ▲공기/기후(피톤치드향, 탄소발자국,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동물복지(닭이 사는 열대림, 벌이 사는 우림, 소가 사는 초원 등) ▲소비자 만족(유기농과 관행농 비교체험, 세계 각국의 유기농 마크) ▲생태적 삶(유기농 제품으로 꾸민 아기방, 유기농 미래 영상)이며, 7대 야외전시장은 ▲유기윤작 ▲유기원예 ▲유기축산 ▲생태건축/대체에너지 ▲오가닉카페 ▲유기식품가공이다.

엑스포 운영시간은 개장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매표소는 8시 30분 부터 17시까지로 운영한다. 입장요금은 일반 1만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2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2015organic-exp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지더블유캐드코리아와 상호 협력키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석정훈)와 지더블유캐드코리아가 지난 27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지더블유캐드(ZWCAD)를 활용한 최신 건축설계 교육서비스로 회원사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지더블유캐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오토캐드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비용은 30%가량 저렴하다. 현재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GS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주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 대상 캐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수주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

역공간 재편과 일체화된 도시재생프로젝트 _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tegrated with Station's Realignment Improvement _Shibuya Hikarie

2020년 도쿄올림픽개최에 발맞추어 도쿄의 도시공간이 하나둘씩 재편되고 있다. 56년 만에 재실시되는 이번 올림픽을 도쿄의 새로운 엔진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들이 도쿄주변 각 지구에서 검토·실시되고 있다. 도쿄도에서도 도쿄의 전체 미래상에 대해서 올림픽 개최 유무에 따른 서로 다른 2개의 그림을 지니고 있었고, 개최지 선정과 함께 「인간스러움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라이즈로 「도쿄 2020계획」을 공표하였다. 주요 프로젝트 내에는 작년(2014년) 8월호에 소개했던 하네다(羽田) 도쿄국제공항과 도쿄 전체를 순환하는 환상2호선 도로의 연결을 위해 민간부지 내 지하도로를 도입한 「토라노몬 힐즈(虎ノ門ヒルズ)」를 비롯하여, 도쿄 임해부(臨海部)의 LRT(Light Rail Transit) 구상,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니혼바시(日本橋)의 재생계획, 하네다 도쿄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에 주요 거점지구의 재생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에 있어 약 5년 뒤 2020년의 도쿄는 지금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또한 도쿄 2020계획의 일환으로서 시부야(渋谷)역 주변지구의 재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시부야역은 6개의 역과 8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의 2번째로 큰 규모의 터미널(신주쿠역 360만 명)로서, 도쿄 내 최대 규모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쿄를 관광하게 되면 한번쯤은 가보는 곳으로 음악, 패션, 영상 등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산업의 집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젊은 도시이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철도노선의 복잡함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2020 도쿄올림픽 개최와 함께 철도환승의 편의성 증진, 보행네트워크형 가로공간구성과 베리어 프리(barrier-free)계획, 노후화된 세장형 건물들의 지진/방재 문제 해결 등을 역 주변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생계획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노선을 상호직통으로 연결하거나 여러 노선의 플랫폼을 이전하는 「철도개량사업」과 「도시기반정비사업」 등의 인프라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이 일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민간 대규모개발사업과 일체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재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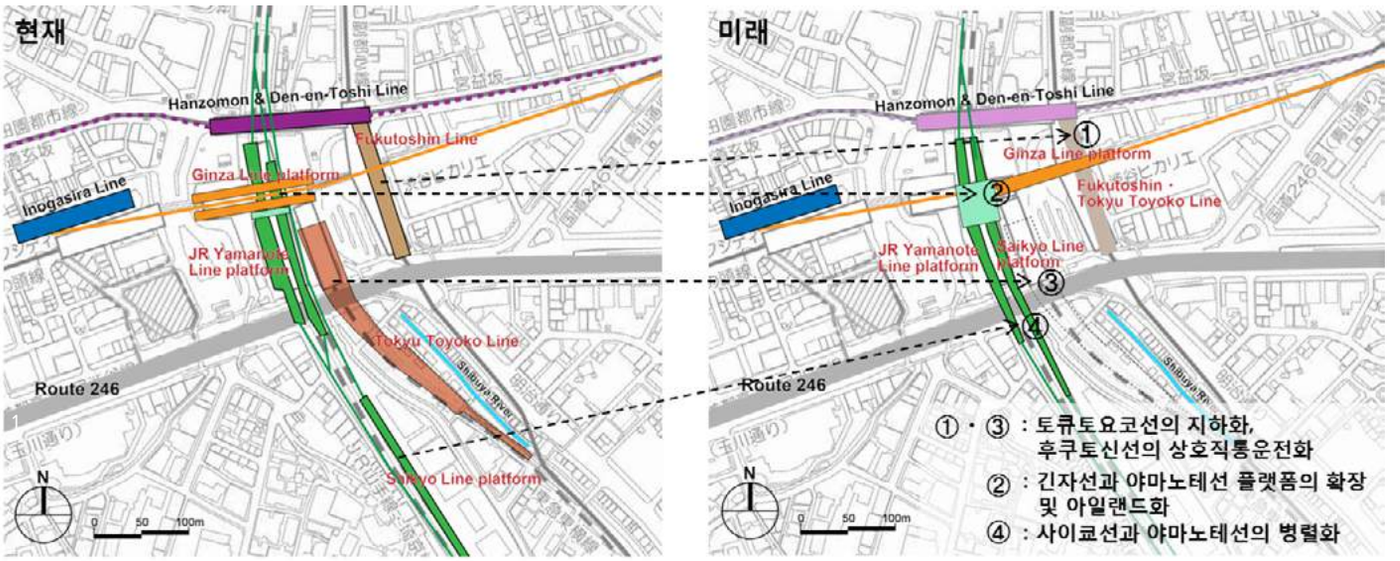
시부야 지구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철도노선 및 플랫폼의 평면적 재편뿐만 아니나 도심부의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하루 300만 명의 역 이용객의 유연한 동선흐름을 위해서는 역시설과 역 앞 광장 등의 입체적인 재편이 요구되었고, 이에 '어반 코어(Urban Co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 민간부지와 역과의 수직적 연결을 통해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여러 개의 어반 코어가 조성될 예정인데, 첫 프로젝트가 「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1]이다.

이렇듯, 시부야의 도시재생은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역 앞 광장과 하전 등의 도시기반의 재정리함과 동시에 건물부지와 철도용지의 집약화를 통한 공간 확보를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개발사업과 철도개량사업」을 통해 철도상부 건물의 건설과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를 활용한 개발사업 내의 동서쪽 역 앞 광장 조성 및 이들을 연결하는 자유통로의 개량과 콘코스(Concourse)의 확충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인프라의 재편과 이를 통해 생겨나는 민간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연쇄적으로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를 활용한 시부야 히카리에

일본의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제도에는 특정가구제도(1961년), 고도이용지구제도(1969년), 종합설계제도(1970년), 재개발촉진구 지구계획제도(1988년)가 존

1) 소재지 :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2쵸메 21번외 (東京都渋谷区渋谷2丁目21番外)
사업주체 : 도쿄 급행전철주식회사 및 토큐문화회관 이적지 근접블록 권리자
용도 : 사무소, 점포, 문화시설, 주차장 등
부지면적 : 약 9,640㎡
연면적 : 약144,000㎡
높이 : 약182.5m
도시계획결정일(도시재생특별지구) : 2008년3월
개업일 : 2012년 4월



시부야역 구조재편 방침(출처. 참고문헌#1 p.117 인용 재작성)

재하는데, 이들 제도는 민간부지 내에 확보한 공개공지의 면적대비 용적률 완화라는 큰 틀에서 활용되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 개방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공개공지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2002년 도입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는 민간부지 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할 의무는 없어졌고, 대신 외부 공헌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다양해진 메뉴를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부야 히카리에의 경우, ①부지 내 다층적 보행네트워크의 형성 ②시부야에서 시작하는 생활문화의 교류공간 만들기 ③자연 에너지활용에 의한 환경부하 저감 ④안전/안심한 마을만들기 추진 ⑤연쇄적기반개량과 지구계획의 일체적 정비의 추진의 5가지 메뉴에 근거한 외부공헌을 인정받아 계획되었다. ①은 상술한 어반 코어를 건물내부에 도입하여 역과 건물간의 수직적 연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그림 참조). ②의 경우, 히카리에의 8~16층을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와 홀 그리고, 영화관 등을 배치하여 시부야가 문화 콘텐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외 3개의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에 의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②의 내용에 근거한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③과 ④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내진설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설비구축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 따른 귀택곤란자 등을 위한 일시적 수용소를 제공하는 지역방재 기능과 재해 시 혼란을 방지하는 정보발신 및 재해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8층에는 시부야 구 방재센터 및 구민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재해지 관계 관청 및 지역재해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와 민간 활력을 활용한 민간부지의 개발사업이 서로 연계·일체화하여 실시됨으로써 시부야 거점지구의 재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지의 건물 내부에 공공의 방재센터와 구민 서비스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개발계획이긴 하나, 앞으로 민간 활력을 이용한 효율적 공공자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4월에 시부야 히카리에가 오픈하고 1년 만에 약 2,000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 시부야 지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관광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Nikken Sekkei ISCD Study Team, Integrated Station-City Development-the Next Advances of TOD, a+u Publishing Co., Ltd, 2013
2. 東京都市計画研究会, 東京2020計画地図, かんき出版2014

시부야 히케리에 전경 및 내외부 모습(필자촬영)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8월말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48	25.5%	981	18	0	999	941	111	32	17	11	1,112	36	2,147
부산	819	8.5%	571	7	0	578	145	23	9	0	2	179	5	762
대구	746	7.8%	570	13	5	588	77	11	5	3	0	96	9	693
인천	392	4.1%	302	2	0	304	60	7	1	0	0	68	9	381
광주	318	3.3%	229	1	0	230	58	5	1	2	1	67	3	300
대전	360	3.7%	270	5	0	275	36	7	3	1	1	48	3	326
울산	248	2.6%	210	4	0	214	19	3	0	1	0	23	1	238
세종	56	0.6%	34	0	0	34	18	2	0	0	0	20	0	54
경기	1,310	13.6%	938	2	0	940	283	12	5	2	1	303	24	1,267
강원	255	2.7%	213	2	0	215	29	2	0	1	0	32	1	248
충북	334	3.5%	253	2	0	255	51	3	1	2	1	58	1	314
충남	379	3.9%	298	3	0	301	55	8	0	1	0	64	0	365
전북	342	3.6%	283	4	0	287	34	7	0	0	0	41	3	331
전남	264	2.7%	220	0	0	220	33	4	0	0	0	37	3	260
경북	538	5.6%	471	5	1	477	42	4	0	0	0	46	4	527
경남	609	6.3%	544	5	0	549	46	4	0	0	0	50	1	600
제주	188	2.0%	151	0	0	151	28	2	1	0	0	31	2	184
합 계	9,606	100%	6,538	73	6	6,617	1,955	215	58	30	17	2,275	105	8,997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8월말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3,154	5,245
서 울	4,199	3,357
부 산	798	250
대 구	702	152
인 천	387	20
광 주	318	127
대 전	370	102
울 산	240	69
경 기	1,487	263
강 원	264	40
충 북	330	111
충 남	340	95
전 북	344	66
전 남	279	113
경 북	512	73
경 남	613	128
제 주	186	95
세 종	56	25
기 타[주]	1,729	159
비 고	회원 : 9,458 / 비회원 : 3,696	대학 : 4,681 / 대학원 : 564

주) 위의 통계의 기타는 건축사등록시 '근무처 없음'을 선택한 건축사임에 따라, 실제 등록현황과 상이함.